

○ 단국대학교 강 ○ 지

취업 준비를 하면서 문득 눈앞의 공부만 하기보다, 사회를 좀 더 넓게 보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법' 분야의 봉사활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개인적으로도 '법과 정치'란 무엇이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활동은 제가 했던 고민에 대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해주었으며, 세상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수행한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판결문 리서치, 그리고 언론 모니터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한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는 청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그 자료를 취합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만 모으는 작업이라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다 취합된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았을 때 꽤나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문항에 대해 남녀 간의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선거나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청년층이 느끼는 전반적인 불신이 생각보다 깊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숫자로 표현된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갈등과 고민의 단면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서는 총 4개의 주요 판결문을 깊이 있게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리서치한 '위법한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은 판결문의 분량이 매우 많아서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대법원이 장애인의 접근권을 헌법 규정으로부터 도출한 기본권이라고 판시하여 법조계에서 굉장히 유의미하게 다루어지는 판례인 만큼, 읽고 넘어가야 할 서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끈기를 가지고 읽어내려가며 복잡한 사건 속에서 논점과 근거를 하나씩 파악하는 과정은 꽤나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난민인정회부 불회부결정 취소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난민인정 불회부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한 판결이었습니다. 무엇보다 1심에서는 판결이 인용되었다가 2심에서는 완전히 반대 결과가 나왔고, 최종 3심인 대법원에서 다시 2심을 뒤집고 1심과 같은 취지로 결론이 난 점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도 판사들마다 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감 직권말소 취소 사건'으로, 제가 다른 판례 중 가장 최신 판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감 직권말소가 실제적인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처분이 아니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인감의 중요성을 고려해 처분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단순한 행정 처리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국민의 권리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행정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판결문은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 근로자 추락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도급인과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를 다툰 사건으로, 노동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 판례였습니다. 핵심은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였는데, 1심은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고, 2심은 엄격하게 법령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안전관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배울 수 있어 인상 깊은 판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행한 활동은 언론 모니터링이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신청할 때부터 '과연 내가 언론을 모니터링할 만한 역량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고, 실제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역시 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봉사가 끝난 지금, 가장 하릴 잘했다고 생각하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특정 기간을 설정해 10개 일간지의 사설을 모아보니 그 수가 150개가 넘었습니다. 이를 하나하나 꼼꼼히 읽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시간이 걸렸고, 이 방대한 데이터를 어떤 구조로 레포트를 작성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단순히 사설을 읽기

만 했을 때는 몰랐는데, 비슷한 화제를 두고도 신문사마다 어떤 차이를 두고 글을 썼는지 비교해 보니 시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진보냐 보수냐'의 이분법적인 성향을 넘어, 각 언론사가 주목하는 이슈의 초점과 접근 분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비로소 제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고, 글을 분석적으로 읽고 작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단순히 취업 스펙을 쌓기 위한 시간을 넘어, 예비 사회인으로서 사회를 바라보는 지평을 넓혀준 소중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 전공의 틀에만 갇혀 있었다면 절대 알지 못했을 사법 시스템의 현실과 언론의 시각, 그리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값진 경험을 겪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한양대학교 강 ○ 연

이번 불학기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공통봉사(청년·대학생 유권자의 법·정치·의식 조사), 헌법변역활동(나이지리아, 네팔, 니제르), 그리고 판결문리서치(특수강간치상죄 기수 의제 사건 및 통 상임금 상여금 포함 사건)를 이수하였다. 향후 법조인 및 법조기자로서의 진로를 지향하는 관 점에서 이론으로만 접했던 법과 제도가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해석되는지 실증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 각 활동을 통해 얻은 구체적인 조명과 배운 점은 다음과 같다.

1. 공통봉사활동 (청년·대학생 유권자의 법·정치·의식 조사 설문 분석) 6.3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유권자 의식 조사의 일환으로, 단순한 표면적 정치 성향 파악을 넘어 사회과학적 가치관을 내밀하게 추적하는 설문 문항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최근 법학 및 정치학계에서 뜨거운 쟁점인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 논쟁'과 같은 구체적인 사회과학적 이슈가 설문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다. 또한 설문 조사는 단순한 통계 수집이 아니라, 대중이 법과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내면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대의 지표임을 깨달았다. 법조기나 법조인에게 필요한 자질은 성문화 된 법조문 자체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법의식 변화와 헌법적 합의 과정을 예리하게 포착하는 실증적 분석력임을 배웠다.

2. 헌법변역활동 (나이지리아 · 네팔 · 니제르 헌법 번역) 서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와 니제르, 그리고 남아시아의 네팔 헌법을 직접 국문으로 번역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국가가 처한 역사적·지리적 배경에 따라 법체계와 기본권의 모습이 얼마나 상이하게 발현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대한민국 체제에서는 당연한 보편적 권리로 여겨지는 투표권이나 시민권 등의 기본권이,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한 역사적 맥락이나 제도적 요건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거나 고유한 방식으로 규정(ex 나이지리아 헌법 상 시민권 포기 및 유예 조항 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비교헌법적 관점에서 세계 각국의 법체계를 검토하며 법의 상대성과 다양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각국의 최고규범인 헌법은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갈등을 봉합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배웠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법 제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글로벌 법학적 안목을 기를 수 있었다. 3.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 사법정보 공개포털 및 전원합의체 판결문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법적 패러다임을 바꾼 핵심 판례들을 심층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3.1. 특수강간치상 '기수죄' 의제 사건 (대법원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특수강간 행위를 시작했으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연구했다. 형법의 엄격해석 원칙과 성폭력 범죄로부터 피해자의 법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실질적 정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치열한 법리적 논쟁을 추적할 수 있었다. 미수와 기수의 형식적인 문언 해석에만 갇히지 않고, 국민의 법 감정과 치상죄의 결과적 가중 범적 특성을 고려한 사법부의

고뇌를 배웠다. 법조인으로서 사안을 바라볼 때 형식적 법논리에만 매몰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정의 실현의 관점을 균형 있게 갖춰야 함을 깨달았다. 3.2. 통상임금 계산시 상여금 포함 조건 사건(대법원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키는 계산 방식과 그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를 다룬 민사 판결을 분석하였다. 이 판례는 기존의 '고정성' 원칙과 '재직자 기준' 등의 조건이 붙은 상여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노사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생존권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었다. 판사들의 판결 한 줄이 단순히 법리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고용 환경, 고용 축소 등의 풍선효과, 그리고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변화 등 국가 경제 전체에 지대한 부메랑 효과를 미친다는 점을 실감했다. 사법부의 판단이 지니는 막중한 사회적 책임감을 배웠으며, 향후 노동경제 분야의 법적 쟁점을 다룰 때 다각적인 시뮬레이션과 균형 감각이 필수적임을 깨달았다.

4. 총평 및 다짐 이번 학기 봉사활동은 학부 과정에서 텍스트로만 접했던 헌법과 형법, 민법의 주요 개념들이 현실 정치, 글로벌 무대, 그리고 노동·형사 사법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며 진화하는지 목격할 기회였다. 사회를 정교하게 진단하는 설문지 문항에서부터 국가의 뼈대를 이루는 헌법 조문, 그리고 시대의 갈등을 해결하는 대법원의 판결문까지 분석하며 '법을 다루는 사람'의 사회적 책임감을 뼈저리게 느꼈다. 여기서 얻은 비교법적 시각과 실증적 분석력,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는 균형 잡힌 법의식을 바탕으로 차후 로스쿨에 진학하여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정의롭게 중재하는 법 조인, 혹은 복잡한 법적 쟁점을 국민에게 명철하게 전달하는 법조기자로 성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되었다.

○ 이화여자대학교 김 ○ 아

저는 법학 연계전공을 통해 헌법, 법철학 등 다양한 법학 과목을 수강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만으로는 법이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체감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헌법과 법철학 강의를 들으며 법학은 법조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비판적 민주 시민이 되기 위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고, 법률소비자연맹 봉사단 활동이야말로 학부 수업을 통해 얻은 배움을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청년대학생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마다가스카르·마셜제도 헌법 번역, 10대 일간지 사설 분석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학기 필수 봉사활동이었던 설문조사는 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는 특성상 많은 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지만, 응답 결과를 엑셀에 정리해 제출한 뒤 전체 결과를 메일로 받아보며 제가 모은 응답이 더 큰 조사의 일부가 되었다는 점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번역 봉사에서는 마다가스카르와 마셜제도의 헌법 일부를 번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문장을 한국어로 옮기는 작업 정도로 생각하였지만, 막상 시작하고 보니 그보다 훨씬 많은 사전 조사와 고민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예컨대 마다가스카르 헌법의 'National Assembly'를 어떻게 번역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영어사전엔 'National Assembly'를 검색하면 '국민의회' 또는 '국회'로 나오지만, 마다가스카르는 상원과 하원을 별도로 두는 양원제 국가이며 'National Assembly'는 그중 하원을 가리키는 고유 명칭입니다. 또한 마다가스카르 헌법은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의 영향을 받아 제정되었는데, 조사를 통해 프랑스 헌법의 'Assemblée nationale'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일반적으로 '국민의회'로 번역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유 명칭을 살려 '국민의회'로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더욱 충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해당 국가의 제도적 맥락을 먼저 파악해야만 정확한 번역이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았고, 외교부 문서를 참고해 마다가스카르의 사법제도를 조사하는 등 번역에 앞서 관련 제도와 용어를 충분히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용어사전을 참고하며 '입법 발의권'보다 '법률안 제출권'이 실제로 사용되는 보다 정확한 표현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번역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셜제도 헌법은 마다가스카르 헌법에 비해 문장 하나하나가 훨씬 길고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번역 난도가 높았습니다. 두 나라의 헌법을 번역하며 나라마다 헌법의 구조와 문체가 다르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는데, 특히 각각 프랑스와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은 역사로 인해 두 나라

의 헌법 체계 역시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번역에 앞서 해당 국가의 역사적 배경과 헌법 제정 과정을 먼저 조사하고 나니 헌법의 내용을 훨씬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번역 봉사는 이번이 처음이었고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니 낯선 나라의 헌법을 직접 우리말로 옮겼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 언론 모니터링 봉사에서는 5월 11일부터 16일까지 10대 일간지의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부끄럽게도 평소 뉴스를 즐겨 보지 않아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지냈는데, 이번 봉사를 통해 일주일 동안 10개 일간지의 사설 148건을 모두 읽으며 각각의 이슈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사설은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해당 이슈에 대한 논거와 주장을 담고 있기에, 각 이슈가 가져올 결과와 의미를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며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읽어야 하는 사설의 양이 많아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반복하다 보니 점차 논점을 빠르게 파악하는 감이 생겼습니다. 특히 동일한 이슈에 대해 신문사별로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는지를 비교하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진보와 보수 성향 매체의 사설을 나란히 놓고 비교·분석하면서, 특정 신문사 하나만 읽는 것이 얼마나 편향된 시각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실감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호 피격 이슈에서 정부의 대응 수위를 논할 때, 어떤 신문은 강경 대응을 보인 나라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고 또 다른 신문은 신중한 입장을 고수한 나라의 사례를 근거로 들며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같은 사실도 어떤 근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직접 확인하면서, 여러 매체의 사설을 함께 읽어야 균형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일부 사설에서는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비판하거나 비꼬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는데, 논거보다 감정적인 표현이 두드러지는 글은 독자를 설득하기보다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분류 기준을 설정하고 148건의 사설을 하나하나 이슈별로 정리하여 비교·분석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작업을 마치고 나니 그만큼 얻은 것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 모니터링은 이번 학기에 진행한 활동 중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 봉사였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 이슈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 관련 사설을 읽으며 유권자의 무관심이 선심성 공약 남발 등 공약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지는 현실을 보면서, 국민이 정치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 시각으로 대표자들의 역할 수행을 꾸준히 감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한 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으로 활동하면서 법과 정치를 제대로 알아야 나와 사회를 수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말에 한층 깊이 공감하게 되었으며, 청년 세대가 이러한 이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정치와 법에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시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법·입법 과정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깨어있는 시민이자,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는 법조인으로 성장해 나가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학교 수업과 병행하다 보니 법정 모니터링이나 의정 모니터링까지는 참여하지 못했는데, 다음 학기에도 다시 지원해 아직 참여하지 못한 활동들에도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 일반 강 ○ 은

법률 관련 경험을 쌓고자 활동을 찾아보던 중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활동을 거듭할수록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다만 이직 준비와 병행하느라 여러 분야의 활동을 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제일 먼저 시작한 활동은 말레이시아 헌법 번역이었다. 처음에는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진행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익숙한 단어도 법률 문맥에서는 해석이 쉽지 않아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번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나라의 역사와 정치 체계를 먼저 공부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헌법이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

정치 체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이해한 뒤 연방헌법과 주헌법 관련 내용을 해석했다. 여러 주가 하나의 나라를 이룬 연방 국가의 헌법을 번역하면서 연방헌법의 구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동시에 다른 나라 헌법을 뜯어보며 역사와 정치 체계를 공부하면서, 정작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서는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점을 깨달았다. 앞으로 우리 헌법도 꼼꼼히 공부해 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봄학기 필수 활동인 법정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 사회 분위기가 양극화되면서 관심이 생겼다. 처음에는 정치 성향을 묻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 활동이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활동을 진행하면서 청년들의 생각을 직접 듣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법정치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싶었으나, 법원 앞까지 갔다가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채 돌아온 적이 있다. 수원지방법원 근처에 갈 일이 있어 그 기회에 모니터링을 해 보려고 했다. 설문조사까지 출력해서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법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법무법인에서 근무했지만, 실제로 법원에 들어가 본 것은 처음이었다. 본관에 들어가니 보안 검색부터 진행했다. 보안 검색 후 법정 앞까지 올라갔으나 언제 들어가도 되는지 몰라 대기만 하다가 결국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못하고 나왔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도전해 보고 싶다.

다음으로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했다. 먼저 대법원 2020다300299 손해배상 판결을 분석했다. 포괄임금제에 관심이 생겨 관련 판결문으로 시작했다.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근무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점, 그리고 그러한 경우 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등을 알게 되었다. 실무에서 계약서를 보면 대부분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무직이 정말 근무 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고 노동법을 더 깊이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로 진행한 판결문 리서치는 2024도10141 사기 사건이다. 가까운 친척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겪어 관련 판결문을 확인해 보고자 진행했다. 보이스피싱에서 현금 수거책도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았다. 리서치 전에는 막연히 당연히 공범으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이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결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번 봄학기 봉사활동을 통해 멀게만 느껴졌던 법학을 조금이나마 가까이에서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유익했다. 다음 학기에도 활동에 참여해 기한 내에 다양한 활동을 해 보고 싶다.

○ 서울대학교 강 ○ 강

처음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솔직히 기대보다 걱정이 앞섰다. 신문 사설을 분석하고 판결문을 읽는다는 것이 내 일상과는 거리가 먼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활동을 마친 지금, 이것이 단순히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이 아니었다는 것을 안다. 세상을 읽는 방식 자체가 조금 달라지는 경험이었다.

사설 분석 작업은 예상보다 훨씬 흥미로웠다. 10개 일간지가 같은 주에 같은 사건을 두고 쓴 사설들을 나란히 놓고 읽다 보면, 처음에는 그 차이가 단순히 논조나 입장의 차이처럼 보인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볼수록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같은 사건인데 두 사설을 각각 읽은 독자는 서로 다른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처음엔 '어느 쪽이 맞는가'를 판단하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보다 '왜 이렇게 다른가'를 묻는 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걸 알게 됐다. 언론이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 아니라 현실을 구성하는 하나의 힘이라는 말이 비로소 실감 나는 순간이었다.

판결문 분석은 이번 활동에서 가장 많이 씨름했고, 그만큼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이다. 게임머니 인지세 사건과 ATM 수수료 사기 사건, 두 가지를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읽으면서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다. 처음엔 낯선 용어들이 벅처럼 느껴졌지만, 하나하나 찾아가며 읽다 보니, 판결문이 단순히 결론을 선언하는 문서가 아니라 논리의 층위를 정밀하게 쌓아 올린 구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게임머니 사건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게임 아이템을 살 때

쓰는 게임머니가 법적으로 '물품'이나 '아니냐'를 두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치열하게 다투는 게 처음엔 사소해 보였다. 그런데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것이 단순히 세금 다툼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 수없이 많아진 시대에, 물건이라는 단어 하나의 해석이 수억 원의 세금을 결정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디지털 자산 전반의 과세 방향을 가르는 선례가 된다. 법이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속도의 문제, 그리고 그 간극을 메우는 방식으로서 판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이 사건 하나에 압축되어 있었다.

이번 활동을 마치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뉴스를 볼 때도 판결 소식을 접할 때도 이전과 다르게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는 점이다. 어떤 신문이 이 사건을 어떤 프레임으로 다루고 있는지, 법원이 어떤 논리로 결론을 냈는지, 그리고 그 결론이 앞으로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었다. 세상을 그냥 보는 것과 맥락을 이해하며 보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이번 활동이 조금이나마 알려준 것 같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은 경험이었다.

○ 성균관대학교 권 ○ 현

이번 2026 봄학기는 처음으로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여러 봉사활동을 하며 보낸 보람찬 학기였다. 모든 활동이 낯설고 처음 도전하는 봉사여서 해매기도 하고 많이 미숙 했지만, 활동 방법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봉사활동 안내문과 늘 매일로 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변과 격려를 제공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 담당자분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봉사활동을 마치고 한 학기를 끝낼 수 있었다. 이번 학기 내가 진행한 봉사활동은 봄학기 필수활동인 대학생법정치 의식 설문조사와 법정치 모니터링,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부은 판결문 리서치다. 대학생법정치의식 설문조사는 가장 먼저 진행한 봉사활동이다. 아직 선거 전인 5월 초, 대한민국의 법, 정치, 선거 관련 문항들을 실은 설문조사를 주변 대학 생활에게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는 봉사활동이었다. 봉사 중에서는 가장 간단한 편에 속했지만, 의외로 이 간단한 활동을 하며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많았다. 우선 주변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돌리 기 전 스스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충격과 부끄러움이었다. 청년과 대학생들을 위한 설문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놀라울 정도로 현재 우리 사회의 법, 정치 현황에 무심한 채 살아왔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잘 모르거나 아예 처음 들어보는 주제들과 개념들을 발견하고 찾아보면서, 관련 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음에도 정작 우리 사회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졌던 것이 아닌가 하며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스로 점검을 마친 후 주변 동기들과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감사하게도 정지적 견해나 민감한 이슈 관련 문항들에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모두 성실히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었다.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학과 동기들 또한 문항 속 개념들에 대해 생소함을 느끼고 찾아보는 모습에서, 청년들의 법, 정치 관련 관심을 촉구하고 참여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봉사활동은 1달 내내 진행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다. 판결문 리서치는 적절한 대법원 판례를 골라 1~3심까지의 내용을 정리 및 분석하고, 사건 관련인들의 정보를 검색하는 활동이다. 사실 지금까지 1~3심에 해당하는 전체 판례를 읽어본 적이 거의 없어 처음에는 걱정부터 앞섰고, 실제 활동 역시 만만치 않아서 초반에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다. 하지만 총 5차례에 걸쳐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첫 활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판결문 구조에 익숙해지고, 쟁점과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복잡한 판결문도 겁먹지 않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리서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문은 대법원 2023다301682(청구이의)로, 최근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는 판결문이었다. 해당 판결문을 분석하고 핵심 쟁점인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할 때 제3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리하면서,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채권자 대위법이 현실 속 사례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사람들 간 분쟁 해결과 공정한 판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 학습 면에서도, 봉사 면에서도 무척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마지막 봉사활동은 법정치 모니터링이다. 민사, 형사, 행정/소액 재판부의 재판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재판부의 활동을 점검

하는 법정 모니터링 활동은, 일정상 단 하루밖에 하지 못했지만 내 기억에 강렬하게 남은 봉사활동이 되었다. 재판장이 멀리자마자 방청한 첫 재판은 내가 막연히 가지고 있던 재판에 대한 상상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매체 속 모습처럼 격렬한 논쟁이 오가는 대신, 판사와 검사, 변호인들은 차분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서로의 발언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이후 방청한 재판들에서도 법적 절차와 근거에 따라 논리정연하게 재판을 이끌어가는 법조인들을 관찰하면서, 점차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사회 속 분쟁들과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이들과처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조화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법조인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봉사활동을 마치고 소감문을 작성하고 있자니, 이번 나의 봉사활동 여정에 대한 아쉬움도 남는다. 이번 학기는 일정 조절의 실패로 가까스로 30시간을 채웠고, 인상 깊었던 법정 모니터링도 한 번밖에 다녀오지 못했다. 다음 봉사활동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금 더 여유롭게 일정을 잡아 이번엔 경험하지 못한 행정/소액 재판부 모니터링도 다녀오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법적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고 싶다.

○ 서울대학교 권 ○ 고

이번 학기의 필수 봉사활동은 대학생 법정치의식 설문조사였다. 대면설문이 원칙이어서 많은 친구들을 상대로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직접 주변 친구들에게 설문 참여를 부탁하고 응답을 받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느끼는 점이 많았다. 평소에는 친구들과 법이나 정치에 대해 깊게 이야기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주변 친구들이 법과 정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대학생이라고 해서 모두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친구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아 설문 문항에 대해 일관된 성향을 보였지만, 반대로 정치를 잘 몰라 일관되지 않은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 활동을 통해 같은 대학생들의 인식과 관심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고, 좀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이번 학기에는 번역봉사도 총 4번 진행하였다. 작년에도 번역봉사를 했고, 올해도 여러 차례 참여하다 보니 처음보다 훨씬 익숙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 번역봉사를 할 때에는 법률 용어와 문장 구조가 낯설어 한 문장을 이해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반복해서 진행하다 보니 어느 정도 문장의 흐름이나 자주 등장하는 표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일반적인 영어 문장과 달리 법률 문서는 문장이 길고 표현이 엄격한 경우가 많아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계속하다 보니 오히려 영어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해본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판결문 리서치였다. 이전에는 판결문을 뉴스 기사나 수업 자료에서 일부만 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활동에서는 직접 판결문을 읽고 내용을 분석해야 했기 때문에 법을 체험하거나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장 유익한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판결문에는 사건의 사실관계, 당사자들의 주장, 법원의 판단 과정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되고 판단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봉사활동들도 의미가 있었지만, 판결문 리서치는 실제 판결을 직접 다룬다는 점에서 법과 가장 가까운 활동처럼 느껴졌다.

다만 판결문을 읽으며 아쉬운 점도 있었다. 일부 판결의 경우 법적으로는 일정한 근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인의 상식이나 감정으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도 있었다. 물론 판결은 감정이 아니라 법과 증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왜 요즘 국민들이 판사들을 신뢰하지 못하는지 어느정도는 이해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법이 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법리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판단 과정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이번 학기 대학생법정치봉사단 활동은 매우 좋은 봉사 경험이었지만, 이번 학기 활동을 하며 아직 경험하지 못한 활동에 대한 아쉬움도 남았다. 특히 직접 법원에 가서 재판을 참관하는 법정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다. 다음에 다시 대학생법정치봉사단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꼭 직접 현장에 가서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해보고 싶

다.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기록한다면, 판결문을 통해 느낀 것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법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숙명여자대학교 권 ○ 희

이번 학기에 법학을 배우면서 단순히 수업을 듣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배운 법학 지식을 실제로 활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좋은 기회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활동해야 하는지 잘 몰라 많이 헤매기도 했습니다.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과정도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처음 접하는 작업들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활동을 마무리한 지금은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봉사가 아닌 실제로 많은 것을 배우고 얻어갈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다양한 판례를 찾아보고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전공 수업에서는 주로 교과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접했는데, 실제 판례를 찾아보니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상황들이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신기했습니다. 같은 법이라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법이 생각보다 훨씬 현실과 가까운 학문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판결문의 내용을 스스로 읽고 이해할 수 있을 때에는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기뻐했습니다. 전공 공부를 하면서 쌓은 지식이 조금씩 연결되는 느낌도 들었고, 법학에 대한 흥미도 더 커졌습니다.

각국의 헌법을 번역하는 작업도 인상 깊었습니다. 나라별로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헌법의 형식이나 분량도 달랐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기본적인 내용은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운영 방식 등 헌법에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은 대부분 공통적이라는 점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와 역할은 비슷하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는 3개월이라는 기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활동을 해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고, 해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특히 판례를 찾고 정점이나 사실관계 정리하는 과정에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번에는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마지막에 조금 급하게 활동을 마무리한 점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조금씩 꾸준히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저에게 단순한 봉사시간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공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로 활용해 볼 수 있었고 다양한 법률 자료와 판례를 접하면서 법학에 대한 이해도 더욱 넓어졌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의 헌법과 역사를 살펴보며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고, 꾸준함과 책임감의 중요성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게 느껴졌지만 끝까지 활동을 마친 지금은 잘 참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전공 학습에 더욱 정진하고 다음 활동에서는 더 꼼꼼하고 계획적으로 임하고 싶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법학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 연세대학교 김 ○ 영

경영학과 사회학을 복수전공하며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법과 제도의 역동성에 깊은 관심을 가 지었다. 교과서와 강의실 내부에서 텍스트로만 접하던 추상적인 이론들이, 평범한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과 맞닿아 있는 현실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작동하는지 목판화처럼 생생하게 확인해보고 싶어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불학기 동안 수행한 판결문 리서치와 청년 법정치 설문조사, 그리고 미얀마 헌법 번역 봉사활동은 대한민국의 청년이자 사회과학도로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실질적 의미를 다각도로 체감하고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한층 더 견고하게 다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가장 많은 시간과 심혈을 기울였던 활동은 단연 판결문 리서치였다. 하나의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에 이르기까지 거쳐 온 하급심의 치열한 법리 논쟁과 사실관계 확정 과정을 역추적 하는 작업은 법률 문장의

정교함과 사법 정의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게 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총 5가지의 핵심 판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2018다41986 손해배상' 사건과 '2022다224986 위약벌채 구의소' 사건을 통해서 민사 분쟁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사적 자치의 한계가 법원의 이익 형량을 통해 어떻게 조율되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거시적인 시장 경제 속에서 기업과 개인, 혹은 주체 간의 불공정한 행위나 의사 표시의 착오가 사회적 형평성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며, 경영학적으로 평가되던 기업 경제 활동의 이면에 법적인 절차 정당성과 규제 논리가 얼마나 촘촘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실감했다. 또한 노동법 분야인 '2023다302838 임금' 사건을 리서치하면서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우리 사회의 고용 구조와 노동 시장의 불평등 문제를 법리적 관점에서 뒤돌아보게 되었다. 법원이 근로자의 권익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사용자의 경영상 재량 사이에서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립해 나가는지 그 치밀한 고뇌의 흔적을 추적하는 일은 지적 쾌감을 선사했다. 나아가 형사 사건인 '2024도10710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및 '2024 도1168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분석할 때는 고도화되고 복잡해진 금융 범죄에 대응하는 사법부의 신중하고도 단호한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수호하기 위해 금융 투자 및 거래 정보의 문언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데 매몰되지 않고, 입법 취지와 시장의 신뢰라는 거시적인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 요건을 어떻게 엄격하고 정교하게 적용하는지 파악하였다. 5건의 방대한 판결문을 정독하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표현으로 풀이하고, 원고와 피고의 주장 구조가 법정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맞물리는지 정리하는 과정은 복잡한 문장을 쫓고 핵심 쟁점을 신속하게 포착하는 문해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정교하게 만드는 데 엄청난 자양분이 되었다. 또 다른 축으로 수행한 청년 법정지 설문조사 봉사활동은 강의실 밖에서 살아 숨 쉬는 대중의 법감정과 청년 세대의 정치적 인식을 실증적인 데이터로 바꾸는 뜻깊은 기회였다. 설문을 수행하며 청년들이 사법 제도와 정치 공동체에 대해 느끼는 불신의 깊이와 동시에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지 직접 목격하였다. 단순히 설문지를 채우는 수동적인 작업을 넘어, 현대 사법 거버넌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청년들의 참여 민주주의적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보완책이 무엇인지 사회학적으로 깊이 고찰해볼 수 있었다. 제도가 지닌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될 때 비로소 건강한 사법 신뢰의 초석이 마련된다는 자명한 진리를 가슴에 새겼다. 마지막으로 미얀마 헌법 번역 봉사활동은 법을 바라보는 시야를 국제적인 지평으로 넓혀준 비교법학적 수련의 과정이었다. 오랜 정치적 격변과 민주화 이행 기로에 서 있는 미얀마의 최상위 규범을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은 단순한 단어의 치환을 넘어섰다. 권력 구조의 분립 방식, 기본권 제한의 한계, 예외적인 비상사태 조항의 엄격성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미얀마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과 조문의 제도적 취지에 대한 깊은 배경지식이 선행되어야만 했다. 법이라는 언어가 지형학적 경계를 초월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명문화하는 지 깨달았고,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지닌 가치를 보다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되돌아보는 귀중한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세 가지 활동은 저마다 다른 영역처럼 보였지만, 결국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법과 제도의 본질적인 책임이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되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쉼 없이 달려온 여정은 단순한 이력 관리나 시간 채우기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한 차원 넓혀준 융합적 실무 수습 과정과도 같았다. 이 때까지 쌓아온 값진 경험과 통찰을 단단한 밑거름 삼아, 앞으로도 법을 단지 학문이나 시험의 대상으로만 매몰시키지 않고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따뜻한 하고도 날카로운 법률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야겠다.

○ 서울대학교 김 ○ 립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두 건의 판결문 리서치와 언론모니터링 분석보고서 작성을 맡았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입장에서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정리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배운 것도 많았다. 첫 번째로 분석한 사건(대법원 2020도1538)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전학 온 아동에

게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였으나, 대법원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집한 녹음파와 일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판결 결과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1심부터 3심까지 법원이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쟁점을 달리 구성해나가는 방식이었다. 특히 증거 수집의 절차적 적법성 문제는, 평소 윤리 수업에서 다루는 '옳은 결과를 위해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어서 더 흥미롭게 읽혔다. 아동을 보호하려는 부모의 행위가 오히려 증거능력 부정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법적으로는 납득이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두 번째 사건(대법원 2020도12920)은 중학교 도덕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소설책을 빼앗아 반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엮으려뻔쳐 체벌을 가한 사건이다. 피해 학생은 해당 사건 당일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법원은 2024년 9월 상고 기각하여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였다. 피고인이 가르쳤던 과목이 도덕이었다는 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윤리교육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교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평소보다 더 무겁게 생각하게 된 사건이었다. 판결문에서 법원이 교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한 논거를 따라가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 아동 보호 법제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언론모니터링 보고서에서는 대법관증원법을 둘러싼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사실을 약 101일간 비교 분석하였다. 두 신문이 인용하는 사실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같은 사실을 두고 한쪽은 '사법부 장악'으로, 다른 쪽은 '사법개혁'으로 규정하면서 독자에게 전혀 다른 현실 인식을 만들어낸다. 뉴스를 그냥 읽을 때는 잘 몰랐던 부분인데, 두 신문을 나란히 놓고 분석하니 그 구조가 눈에 들어왔다. 세 가지 활동 모두 법률 문어나 언론 보도를 직접 읽고 분석하는 작업이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앞으로 사법 감시 활동이 시민의 법 이해를 높이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새삼 느꼈다.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

○ 서강대학교 김 ○ 연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판결문 리서치'와 '외국 헌법 번역'이라는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법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국가를 어떻게 지탱하는지 그 역할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에게 가장 많은 깨달음을 준 것은 대법원 2017다46274 사건의 판결문 리서치였습니다. 위법한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거액의 손해에 대해 사내하청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들이 책임을 져야 했던 이 사건은, 처음 판결문을 마주했을 때 그 방대한 분량과 낯선 법률 용어들로 인해 막막함이 앞섰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50%의 무거운 연대책임을 지도록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1심부터 3심까지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차근차근 정리하며 따라간 끝에 마주한 대법원의 판단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대원은 정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과, 다수결에 의해 정해진 지시에 현실적으로 불응하기 어려운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이라는 이념에 어긋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을 분석하며 저는 사법부가 단순히 조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현실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2026년 청년·대학생 법·정치·선거 의식조사'는 제 또래 대학생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하며 주권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청년들의 신뢰도가 낮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현실을 보며 씁쓸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약 75%의 대학생들이 선거에서 내 한 표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하고, 다가오는 제9회 동시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결과를 확인하고는 우리 세대가 결코 정치적 무관심에 빠져있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헌법 번역 활동은 네팔, 니제르 등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국가 체제의 제도를 들여다보는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처음으로 했던 네팔 헌법 번역 활동(63-67p)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헌법 제183조부터 제201조에 이르는 주의회 입법 절차를 우리말로 옮기기 위해, 저는 먼저 네팔이 240년 역사의 군주제를 종식하고 연방 민주 공화국으로 거듭나기까지의 격동적인 역사를 학습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조문을 번역하다 보니 그 이면에 담긴 국가적 고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석장관임명 후 첫 2년 동안은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한 조항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로서 잦은 정권 교체가 불러올 수 있는 정치적 혼란을 막고 국정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이 보였습니다. 또한 주의회 내의 완전한 발언의 자유를 보장하고 무단 투표에 엄격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의회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지려는 조문들을 번역하며, 한 국가가 어떻게 헌법을 정착시키며 국가의 기틀을 다져나가는지 깊이 통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과 정치는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며,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을 보호하고 있고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이번 봉사 활동을 통해 얻은 비판적 사고력을 통해 앞으로도 우리 사회와 제도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끊임없이 묻고 감시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서울대학교 김 ○ 현

이번 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대학생 봉사단 활동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분석하는 '판결문 리서치'와 번역봉사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귀중한 기회를 가졌다. 교과서 속의 법리와 뉴스로만 접하던 재판의 모습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감시'가 왜 필요한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판결문 리서치를 시작하기 전, 법률 문서란 딱딱한 조문과 생소한 용어들의 나열일 것이라 막연히 생각했다. 그러나 네건의 판결문을 직접 분석하고 정리하면서, 법원의 한 줄 판시가 실제 사람들의 삶과 사회 전체에 얼마나 큰 파장을 미치는지 비로소 실감하게 되었다. 첫 번째로 분석한 2022도10629 사건(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은 기망으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의 법적 성격을 다룬 형사사건이었다. 2심은 피해자가 외형상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대법원은 기망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교부는 결국 '기망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문언 해석을 관철하여 파기환송하였다. 이 사건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법문이 비교적 명확할 때 체계적·논리적 해석보다 문언 해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법해석이 항상 복잡한 논리의 산물이라 아니라, 때로는 법의 문장 그 자체를 충실히 따르는 데서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배웠다.

두 번째 2016다237974 사건(마이너스 통장 착오송금)은 일상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실수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여준 민사사건이었다. 잘못 이체된 돈이 마이너스 통장 계좌로 들어가는 순간, 수취인의 대출채무가 자동으로 감소한다는 금융 구조의 특수성이 핵심이었다. 직관적으로는 돈을 보유한 은행이 반환해야 할 것 같지만, 법원은 실제 이익을 얻은 자가 계좌 명의인이므로 부당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상대방도 명의인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현실의 금융 구조와 법원이 만나는 지점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착오송금 피해자가 결국 수취인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현실에서, 법리의 정확성이 때로는 피해자 구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씁쓸함도 남았다.

<중략>한편, 미얀마, 네팔, 나우루의 헌법을 직접 번역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통치구조와 기본권 보장 방식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를 몸소 체감하였다. 미얀마 헌법은 군부의 정치 개입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조항들을 명문화하고 있어, 헌법이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문서가 아니라 오히려 특정 세력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네팔 헌법은 연방제, 세속주의, 포용적 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민족의 권리를 촘촘히 규정하고 있었는데, 선언적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였다.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나우루의 헌법은 분량은 짧았지만, 자원 의존 경제와 기후 위기라는 실존적 위협 앞에서 국가의 존립 자체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라는 묵직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었다. 세 나라의 헌법을 번역하며 깨달은 것은, 헌법이란 단순한 법조문의 집합이 아니라 그 사회가 걸어온 역사와 지향하는 미

래를 동시에 담은 살아있는 문서라는 점이다. 판결문 리서치에서 대법원이 법문의 의미를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하려 했듯, 헌법 또한 그것을 살아가는 시민의 삶의 언어로 읽힐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을 이번 번역 작업을 통해 깊이 새길 수 있었다.

○ 서울교육대학교 김 ○ 환

법률소비자연맹 활동은 법에 관심이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다가 알게 되었다. 언론을 모니터링하는 활동, 외국 헌법을 번역하는 활동, 판결문을 분석하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다. 다른 법 관련 대외활동과는 다르게 활동의 종류가 정말 다양했고 전문성도 높아 보여서 곧바로 신청하게 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는 정말 인상 깊었던 점이 있었다. 가장 먼저 비대면 활동이라는 점이다. 대학생인 나에게는 학업과 여러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담이 적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다. 하지만 비대면이라고 해서 활동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 직접 판결문을 찾아보고 분석하고, 외국 헌법을 번역하며 관련 내용을 조사하는 등 활동 과정이 매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다. 오히려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며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대면 활동 못지않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중략>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판결문리서치 활동이었다. 평소 교권과 아동학대 문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뒤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선택하였다. 최근에도 비슷한 사건이 언론에서 자주 다뤄졌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판결문 전문을 읽고 분석하는 것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았다. 그동안 판결문 전체를 제대로 읽어본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차분하게 읽어보니 생각보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고, 어떤 법적 쟁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다. 내가 조사한 사건에서는 1심과 2심에서 학부모가 제출한 녹음파일이 증거로 인정되었지만, 대법원에서는 해당 대화를 공개된 대화로 볼 수 없고 학부모를 제3자로 판단하여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조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판결문 조사 양식에는 판결 내용뿐만 아니라 재판장, 피고인, 변호인의 경력 등을 조사하는 항목도 있었다. 처음에는 왜 이런 내용까지 조사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직접 자료를 찾아보면서 사건의 배경과 진행 과정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판결이 내려진 이유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단순히 판결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번 불학기 동안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점도 있다. 시간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바쁘다는 핑계로 활동을 미루다가 학기 말에 여러 활동을 한꺼번에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활동하지 못한 점이 아쉽게 느껴졌다. 다음에는 계획적으로 참여하여 더 많은 활동을 경험하고 싶다.

이번 활동을 통해 법의 기능과 구조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실제 판결문과 헌법을 직접 다루면서 법을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단순히 법률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 스스로 자료를 찾고 분석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교사가 되어서도 학생들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법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법적 소양과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

○ 연세대학교 김 ○ 경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제가 처음으로 참여한 법률 관련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주로 현장에서 직접 사람을 만나 돕는 활동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참여한 봉사활동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활동을 통해 자료 번역, 법률문서 조사, 판결문 리서치와 같은 지식 기반의 봉사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인상 깊었던

활동은 여러 국가의 헌법을 번역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외국어 문장을 한국어로 옮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해보니 법률 문장을 번역한다는 것은 단어의 의미를 기계적으로 바꾸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헌법 조항은 한 국가의 정치제도, 권력구조,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몰디브, 몰도바, 모잠비크, 미얀마처럼 평소 자세히 접해보지 못했던 국가들의 헌법을 읽으며, 각 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국가권력과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은 단순히 국내의 제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각 사회의 역사와 정치적 조건을 반영하는 중요한 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면서 법이 실제 사건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사건과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판결문을 조사하며, 법률 조항만을 아는 것과 실제 법원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법리를 적용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판결문에는 사건의 경위, 당사자의 주장, 법원의 판단이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읽는 과정에서 법적 판단이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법리의 세밀한 검토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직접 읽어보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초반에는 판결문의 문장이 어렵고 구조도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읽다 보니 쟁점과 법원의 판단기준을 조금씩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참여한 봉사활동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법률 용어는 일상적인 표현과 달리 정확성이 매우 중요했고,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나 리서치를 할 때 단순히 빠르게 끝내는 것보다, 문장의 의미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렸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자료를 다루는 태도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정리한 자료가 누군가에게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작은 부분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직접적인 대면 봉사만이 아니라, 법률 정보의 정리와 번역, 판례 리서치처럼 공익적 지식의 축적에 기여하는 활동도 중요한 봉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률 정보는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일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첫 봉사활동은 법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준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어진 활동을 수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활동을 마치고 돌아보니 헌법, 판례, 시민의식 조사가 모두 법치주의와 시민사회라는 큰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또한 단순히 봉사시간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제가 가진 지식과 시간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 중앙대학교 김 ○ 린

이번 활동을 통해 판결문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정리한 문서가 아니라, 사회의 갈등이 법이라는 언어로 정리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체감할 수 있었다. 법률연맹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다섯 건의 판결문을 리서치하면서, 법이 추상적인 규범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는 실천적 장치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분석한 2022다46244 관리처분계획취소청구 사건은 도시정비사업이라는 공공성과 재산권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행정의 재량을 통제하는지를 보여 주었다. 이어 살펴본 2023다261302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은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이익의 귀속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법이 사후적으로 공정성을 회복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했다. 특히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도 결국 법적 원인과 관리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다. 세 번째로 검토한 2024다254387 대여금 및 공사대금 청구와 손해행위취소 사건은 민사 분쟁이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채권자 보호와 거래 안전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구조임을 보여주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한계를 법이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네 번째 2024다31232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종료 사건은 노동과 유사한 관계에서 계약 종

료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문제를 다루며, 계약 자유의 원칙이 항상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2024다7611 공동명의 자동차 담보 및 사기 횡령 사건은 형사법이 재산권 보호와 사회적 신뢰 유지라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구성요건 판단의 엄격함이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필수 활동으로 진행한 법정치의식 조사는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법과 정치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지식수준이 아니라 실제 사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느꼈다. 응답 결과를 분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법을 '멀리 있는 제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일상적인 분쟁과 권리 보호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동시에 법적 절차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도 중요한 발견이었다. 봄학기 봉사 활동을 통해 법은 단순히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사이의 긴장을 조정하고 공정성을 구현하려는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판결문을 읽는 과정은 결론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 구조를 따라가며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다. 앞으로도 법을 하나의 완결된 결과물이나 아니라 끊임없이 해석되고 적용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며,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

○ 이화여자대학교 김 ○ 아

저는 법학 연계전공을 통해 헌법, 법철학 등 다양한 법학 과목을 수강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만으로는 법이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체감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헌법과 법철학 강의를 들으며 법학은 법조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비판적 민주 시민이 되기 위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고, 법률소비자연맹 봉사단 활동이야말로 학부 수업을 통해 얻은 배움을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청년대학생 법·정치외식 설문조사, 마다가스카르·마셜제도 헌법 번역, 10대 일간지 사실 분석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학기 필수 봉사활동이었던 설문조사는 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는 특성상 많은 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지만, 응답 결과를 엑셀에 정리해 제출한 뒤 전체 결과를 메일로 받아보며 제가 모은 응답이 더 큰 조사의 일부가 되었다는 점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번역 봉사에서는 마다가스카르와 마셜제도의 헌법 일부를 번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옮기는 작업 정도로 생각하였지만, 막상 시작하고 보니 그보다 훨씬 많은 사전 조사와 고민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예컨대 마다가스카르 헌법의 'National Assembly'를 어떻게 번역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영어사전엔 'National Assembly'를 검색하면 '국민의회' 또는 '국회'로 나오지만, 마다가스카르는 상원과 하원을 별도로 두는 양원제 국가이며 'National Assembly'는 그중 하원을 가리키는 고유 명칭입니다. 또한 마다가스카르 헌법은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의 영향을 받아 제정되었는데, 조사를 통해 프랑스 헌법의 'Assemblée nationale'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일반적으로 '국민의회'로 번역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유 명칭을 살려 '국민의회'로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더욱 충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해당 국가의 제도적 맥락을 먼저 파악해야만 정확한 번역이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았고, 외교부 문서를 참고해 마다가스카르의 사법제도를 조사하는 등 번역에 앞서 관련 제도와 용어를 충분히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용어사전을 참고하며 '입법 발의권'보다 '법률안 제출권'이 실제로 사용되는 보다 정확한 표현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번역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셜제도 헌법은 마다가스카르 헌법에 비해 문장 하나하나가 훨씬 길고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번역 난도가 높았습니다. 두 나라의 헌법을 번역하며 나라마다 헌법의 구조와 문제가 다르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는데, 특히 각각 프랑스와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은 역사로 인해 두 나라의 헌법 체계 역시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번역에 앞서 해당 국가의 역사적 배경과 헌법 제정 과정을 먼저 조사하고 나니 헌법의 내용을 훨씬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번역 봉사는 이번이 처음이었고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니 낯선 나라의 헌법을 직접 우리말로 옮겼다는 점에서 큰 보람

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 언론 모니터링 봉사에서는 5월 11일부터 16일까지 10대 일간지의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부끄럽게도 평소 뉴스를 즐겨 보지 않아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지냈는데, 이번 봉사를 통해 일주일 동안 10 개 일간지의 사설 148건을 모두 읽으며 각각의 이슈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사 설은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해당 이슈에 대한 논거와 주장을 담고 있기에, 각 이슈가 가져 올 결과와 의미를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며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읽어야 하는 사설의 양이 많아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반복하다 보니 점차 논점을 빠르게 파악하는 감이 생겼습니다. 특히 동일한 이슈에 대해 신문사별로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는지를 비교하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진보와 보수 성향 매체의 사설을 나란히 놓고 비교·분석하면서, 특정 신문사 하나만 읽는 것이 얼마나 편향된 시각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실감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호 피격 이슈에서 정부의 대응 수위를 논할 때, 어떤 신문은 강경 대 응을 보인 나라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고 또 다른 신문은 신중한 입장을 고수한 나라의 사례를 근거로 들며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같은 사실도 어떤 근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직접 확인하면서, 여러 매체의 사설을 함께 읽어야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일부 사실에서는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비판하거나 비꼬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는데, 논거보다 감정적인 표현이 두드러지는 글은 독자를 설득하기보다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분류 기준을 설정하고 148건의 사설을 하나하나 이슈별로 정리하여 비교·분석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모든 작업을 마치고 나니 그만큼 얻은 것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 모니터링 은 이번 학기에 진행한 활동 중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 봉사였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 이슈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 관련 사설을 읽으며 유권자의 무관심이 선심성 공약 남발 등 공약의 하향평준화로 이어지는 현실 을 보면서, 국민이 정치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 시각으로 대표자들의 역할 수행을 꾸준히 감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한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으로 활동하면서 법과 정치를 제대로 알아야 나와 사회를 수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말에 한층 깊이 공감하게 되었으며, 청년 세대가 이러한 이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 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정치와 법에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시민 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법·입법 과정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깨어있는 시민이자,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는 법조인으로 성장해 나가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학교 수업과 병행하다 보니 법정 모니터링이나 의정 모니터링까지는 참여하지 못했는데, 다음 학기에도 다시 지원해 아직 참여하지 못한 활동들에도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 경희대학교 김 ○ 린

대학에서 학문을 다룰 때는 대개 정돈된 이론과 논리적 구조를 중심으로 접근하게 되지만, 현실 속의 법과 정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치열하게 충돌하는 현장이다. 평소 사회적 흐름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기획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던 중, 법률소비자연맹 대학생 봉사단 활동에 참여하며 법과 사회의 접점을 깊이 있게 탐구할 기회를 얻었다.

이번 활동은 동 세대 청년들의 인식을 직접 진단하는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를 필수활동으로 하여,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갈등과 조정 과정을 들여다보는 '판결문 리서치'로 이어졌다. 현실에 대한 감각과 학술적 접근을 동시에 요구했던 이 다채로운 활동들은 사회 제도를 바라보는 나의 시야를 한층 더 넓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다. 대학생 청년 대상의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는 사회의 현재를 직접 진단해보는 기회였다. 지금의 청년 세대가 공정과 정의,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치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통계적 수치 너머에 있는 청년들의 생각을 분석하며, 제도적 보완을 바탕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임을 깨달았다.

이 조사를 통해 좋은 법과 정치란 단순히 성문화된 문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신뢰를 얻고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때 비로소 제도적 생명력을 얻는 것임을 깨달았다. 설문조사 활동은 제도가 지향해야 할 인간 중심의 가치와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을 먼저 고민하게 만든 소중한 계기였다.

이어 진행한 '판결문 리서치'는, 실제 법률이 국민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기능하는지 확인하는 생생한 배움의 장이었다. 수소연료전지 기술 유출 사건부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 교통사고 및 오피스텔 화재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여러 분야의 판결문을 분석하는 작업은 조문으로만 존재하던 법률이 국민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기능하는지 확인하는 생생한 배움의 장이었다. 기술 유출 판례에서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무형 자산과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는 안보적·경제적 무게감을 실감하였다. 이는 창작물의 가치를 다루는 나의 전공 분야와도 긴밀히 맞닿아 있어,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의사면허자격정지취소 판례 리서치는 공익적 가치와 개인의 직업적 권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조율되는지 고민해보는 기회였다. 전문가 집단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의 기준과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따져보며, 법이 가진 사회적 조정 기능이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하는지 배울 수 있었다. <중략>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다각적인 활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두 축인 법적 제도와 시민의식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다양한 판례를 통해 삶을 규율하는 법 현실의 복잡성을 배웠다면, 청년 설문조사를 통해서 는 제도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상식과 신뢰의 가치를 탐구할 수 있었다.

건전한 비판과 감시가 없는 제도는 정체되기 쉽고, 구성원들의 신뢰가 결여된 법은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 이번 활동을 통해 기른 시민으로서의 비판적 시각과 사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탐구 자세는 앞으로 내가 어떤 분야로 나아가든 삶을 이끄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과 부조리를 예리하게 포착하되,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원인과 대중의 정서를 깊이 있게 통찰하는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 그리하여 무형의 가치를 창조하는 전공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건전한 법치주의와 성숙한 공동체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가 되고자 한다.

○ 연세대학교 졸업 박 ○ 연

굉장히 느끼는 바가 많았던 봉사활동이었다. 처음 이 활동을 시작할 때, 나는 직장을 다니면서 미국 로스쿨 준비를 병행하고 있었다. 법에 대한 관심과 확신은 있었지만, 아직 로스쿨생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직접 법과 관련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다. 그래서 늘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네이버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을 알게 되었고, 봄학기 봉사활동 모집이 열리면 꼭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후 로스쿨 지원을 모두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던 시점에, 법과 더 가까이 닿아 있는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실제 지원까지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일반인으로서 법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다. 그런데 막상 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 단순히 봉사시간을 채우는 활동이 아니라 내가 왜 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법의 어떤 부분이 나와 잘 맞는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법정모니터링은 나에게 매우 인상 깊은 경험이었다. 법정을 직접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고, 실제 재판에서 변호사들이 어떤 논점을 중심으로 주장하는지, 판사들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절차를 진행하는지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책이나 기사로만 접하던 법이 실제 사람들의 분쟁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법정에서 앉아 있으면서 법치국가의 시민으로서 느끼는 목직함 감정도 있었고, 동시에 앞으로 법을 공부하고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도 더 분명해졌다.

판결문 리서치 역시 굉장히 유의미한 활동이었다. 나는 증권사에서 일하며 자연스럽게 금융시장과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만큼, 판결문을 읽고 정리하는 과정을 특히 흥미로웠다. 금융 관련 사건들이 회사 내부의 실무나 시장의 관점에서만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서

는 어떤 기준과 논리로 판단되는지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사건이라도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어떤 증거를 중요하게 보는지, 법원이 법의 목적과 조문을 어떻게 연결해 결론을 내리는지 살펴보면 법적 사고의 매력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단순히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를 차근차근 검토하고 그 안에서 설득력 있는 결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인상 깊었다.

처음에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던 언론모니터링이나 법정 치의식 설문조사도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특히 언론모니터링을 하며 여러 경제지의 사실과 기사를 스크랩하고 분석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언론을 통해 어떻게 다뤄지는지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었다. 평소에도 기사를 많이 읽는 편이지만, 이번 활동처럼 여러 언론사의 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모아보고 비교해본 것은 처음이었다. 비슷한 사건이라도 언론사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고, 같은 경제·사회적 이슈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독자에게 전달되는 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느꼈다. 기사를 단순히 소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흐름과 표현 방식, 반복되는 주제들을 정리해보면서 사회를 보는 시야도 조금 더 넓어진 것 같다.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또한 내가 평소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을 돌아보게 했다. 법은 법원이나 법조인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결국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위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다시 느꼈다.

이 활동을 하는 동안 나는 미국 로스쿨 지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기간 동안 봉사활동에서 느낀 점과 배운 점들을 정리하며, 법을 공부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 결국 희망하던 미국 로스쿨에도 합격하게 되었다. 물론 이 봉사활동 하나만으로 합격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법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내가 법의 역할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해준 소중한 계기였다. 또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법에 끌리는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진 법조인이 되고 싶는지 생각해볼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돌아켜보면 이번 봉사활동은 나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찾아온 경험이었다. 당시에는 그저 법과 관련된 활동을 더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지나고 보니 나의 진로와 가치관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다. 법정에서 실제 재판을 보고, 판결문을 읽고, 언론을 분석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법의식을 생각해보는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나에게 새로운 배움이었다. 인생에서 나에게 필요한 경험은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나에게 오게 된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하는데,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이 내게는 그런 의미였다.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고, 앞으로 법을 공부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오래 기억에 남을 감사한 경험이었다.

○ 이화여자대학교 박 ○ 혜

이론으로만 접하던 법을 삶의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는 것은 법학을 지망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숙제이자 갈망이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한 법정 모니터링 봉사활동은 이러한 갈망을 해소하고, 법이라는 거대한 체계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다. 단순히 강의실이나 책상 위에 머물던 추상적인 법적 개념들을 실제 인간의 삶과 갈등이 얽힌 재판 현장 속에서 확인하는 과정은 매 순간이 경이로움과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이번 활동은 나에게 단순한 봉사 시간 채우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향후 나아가야 할 진로의 이정표를 정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법정의 무거운 문을 열고 들어가 마주한 재판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치열하고 엄숙한 공간이었다. 판사와 검사, 변호인, 그리고 피고인 사이에 오가는 날카로운 공방과 법리적 논쟁을 모니터링하며, 법의 문장 하나가 개인의 삶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온몸으로 체감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는 법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막연하게 꿈꾸던 미래의 모습이 구체적인 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다. 법적 지식을 갖추는 것만큼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공정한 판단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으며, 이를 통해 법조인이라는 직업적 목표에 대한 확신과 책임감을 동시에 갖게 되었다. 이처럼 생생한 직업적 동기부여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준 법률소비자연맹의 프로그램에 깊은 감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모니터링 활동 중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우리나라의 재판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나라의 헌법 작업과 사법 체계를 접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각 국가가 처한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가치관에 따라 헌법의 조항과 사법 제도가 어떻게 다르게 설계되고 운영되는지 비교해 보는 과정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다른 나라의 헌법 작업을 들여다보는 것은 단순히 타국의 법을 공부하는 것을 넘어, 도리어 우리 법 체계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되었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한국의 사법 정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안목이 필수적임을 깨달았으며, 이는 향후 비교법학이나 국제법 분야로까지 학문적 흥미를 확장하는 강력한 불씨가 되었다.

법정모니터링은 사법부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투명하게 작동하는지 감시하는 '시민의 눈' 역할을 대변한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법 정의를 수호하는 감시자로서 법정에 섰던 경험은 나에게 올바른 시민 의식을 심어주었다. 아울러 이번 봉사는 내가 왜 법을 공부하고자 하는지, 앞으로 어떤 태도로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해준 전환점이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마련해 준 이 소중한 기회를 발판 삼아, 앞으로 학업에 더욱 정진하여 전문성과 인간미를 겸비한 법조인으로 성장할 것이다. 눈으로 본 법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는 그 법을 통해 사회를 이롭게 만드는 인재가 되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 연세대학교 박 ○ 성

법률봉사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법이 꼭 법정이나 상담 현장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알리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참여한 활동은 언론모니터링과 번역봉사였는데, 두 활동 모두 직접 누군가를 대면하여 돕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법과 인권의 문제를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게 해준 경험이 있었다.

언론모니터링 봉사를 하며 여러 기사와 보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표현과 관점으로 전달되는지에 따라 독자가 받아들이는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느꼈다. 법률적 쟁점이나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문제는 특히 보도의 방식이 중요했다. 부정확한 표현이나 자극적인 제목은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 있고, 때로는 당사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도 있다. 반대로 균형 잡힌 보도는 사회 구성원들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활동을 통해 언론을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적·사회적 책임과 연결된 중요한 공적 장치로 바라보게 되었다.

또한 언론모니터링은 나에게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알려주었다. 법률봉사라고 하면 흔히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사회 곳곳에 드러난 문제를 꾸준히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기사들을 보며 특정 문제가 개인의 예외적인 불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되었고, 법과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보이기 시작했다. 작은 기사 하나를 읽고 정리하는 일이 단순한 자료 수집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책임감을 느꼈다.

번역봉사 역시 나에게 새로운 배움을 주었다. 번역은 단순히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글의 맥락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전달하는 과정이었다. 특히 법률이나 인권과 관련된 내용은 단어 하나의 선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함이 필요했다. 직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원문의 취지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읽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고민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정확성과 책임감의 중요성을 배웠다.<중략>

이 활동들을 통해 나는 법을 공부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태도가 단지 전문지식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사회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시선, 표현 하나에도 책임을 느끼는 태도, 그리고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성실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도 법을 단순한 규칙이나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약자의 권리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 바라보고 싶

다. 언론모니터링과 번역봉사는 나에게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 홍익대학교 박 ○ 윤

2026년 이번 학기,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의 막막함과 긴장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법학을 공부하면서 이론적인 지식은 쌓아왔지만, 실제 시민 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작동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공익적 감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체험할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히 정해진 과제를 수행하는 시간을 넘어, 법학도로서 제가 배우고 있는 지식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

다. 이번 활동에서 가장 먼저 의미 있게 느낀 것은 번역 봉사였습니다. 번역은 단순히 외국어 문장을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표현하는 세심함이 필요한 활동이었습니다. 특히 법률 용어는 작은 단어 하나에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문맥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여러 차례 사전을 찾아보고 문장을 다듬으며 법률 언어가 가진 엄밀함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고, 완성된 결과물을 보며 제 지식과 노력이 공익적인 활동에 보탬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성취감을 얻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법학을 공부하는 저에게 특히 많은 배움을 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관계와 쟁점, 법원의 판단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긴 문장과 법률 용어 때문에 여러 번 읽어야 이해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매뉴얼에 따라 사실관계와 쟁점, 판단 근거를 나누어 살펴보면 판결문을 분석하는 방법을 조금씩 익힐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고, 법원이 어떠한 논리로 결론에 이르렀는지 따라가는 과정은 매우 흥미로웠으며, 법률 지식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고 판단하는 능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역시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설문 문항을 접하고 응답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법과 정치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교과서 속 개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참여 속에서 유지되고 발전한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또한 건강한 법치 사회를 위해서는 제도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볼 때 더 넓은 시각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저에게 많은 성장과 성찰을 안겨준 시간이었습니다. 번역 봉사를 통해 법률 언어의 정확성과 책임감을 배웠고,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실제 사건 속에서 법리가 적용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를 통해 법과 정치가 시민 사회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 과정이 항상 쉽지만은 않았지만, 모든 과제를 끝까지 마무리했을 때 느낀 보람은 매우 컸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법률소비자연맹이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법치 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저의 작은 노력이 그러한 공익적 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단순히 지식을 쌓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지식을 사회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자세를 잃지 않겠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얻은 배움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법과 사회 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권익과 공익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려대학교 박 ○ 하

2025년도부터 교내 국제법학회에서 활동하며 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활동을 찾아보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지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국내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 봄학기 동안의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 제가 가장 집중한 봉사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였습니다. 처음 접한 사건이자, 기억에 남는 사건은 대법원 2021다269418 손해배상(가)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000000주식회사(현 0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00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수백 명의 원고가 소송을 건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회사의 분식회계로 인해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손해배상 범위 및 인과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재판부는 주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무재표나 사업보고서, 그리고 이를 감사한 감사보고서를 투자자가 신뢰하여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 및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정상주가 형성일 이전의 주가 하락분은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2심에서 쟁점이 변화했다는 점이었습니다. 2심에서 피고들의 변호인측은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회사가 분식의 허위기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이전에 원고들이 해당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손해배상 범위 및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피고측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는데, 분식회계 사실 및 유사정보가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1년 1개월여의 시간 동안의 주가하락에 대해서는 피고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측의 손해배상 책임은 2심에서 다소 경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3심에서 다시 뒤집히게 됩니다. 대법원은 앞서 언급한 1년 1개월여의 시간 동안의 주가하락에 대해서도 피고 회사의 주가가 하락한 원인이 이 사건 허위공시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를 넘어, 이 사건 허위공시가 주가 하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거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하락하였음이 증명되어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해당 시기의 손해에 대해서도 피고측에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문리서치를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여러 명의 피고, 다양한 쟁점 등 때문에 판결문을 이해하는 데에도 애를 먹었지만, 익숙해지면서 다양한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나아가 제가 정리한 리서치가 누군가가 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에도 장애인 차별, 난민, 산업기술보호, 아동학대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며 판례에 담겨진 법적 논리를 살펴보는 것은 물론 사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봉사활동에 신청해도 될지 고민했던 저처럼 누군가는 이 봉사활동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례 리서치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는 저와 같은 초보 봉사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잘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을 따라 차근차근 사건을 이해하며 봉사를 진행하다 보면 어느새 성장한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성균관대학교 박 ○ 규

저번 겨울부터 법조계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했던 법률소비자연맹의 두번째 봉사활동이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법에 관한 사전 지식이 전무했던 제게 이번 활동은 단순한 봉사 이상의,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선물해 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판결문 리서치'와 '청년대학생 법의식 설문조사' 활동에 참여하며 법과 정치가 우리 삶에 얼마나 밀접하게 닿아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는 희망하는 대법원 판례를 신청하여 컴퓨를 받은 후, 해당 사건의 1심부터 3심까지의 사실관계, 쟁점, 결과를 분석해 하나의 보고서로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 판례를 접했을 때는 낯설고 어려운 법률 용어와 끝을 알 수 없이 길고 복잡한 문장 때문에 한 페이지를 읽어 내려가는 것조차 큰 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서치 횟수가 거듭될수록 생소한 단어들을 저만의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어 정리해 보면

서, 멀게만 느껴졌던 법률 용어들이 조금씩 친숙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겼습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 정작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에는 왜 이렇게 불친절할까?'라는 점이었습니다. 판례 속 단어들이 조금 더 쉬워지고 문장이 간결해진다면, 더 많은 국민이 법의 도움을 편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리서치 결과물이 이러한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법률 서비스에도 '사용자 중심의 배려'가 도입되기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분기의 또 다른 주요 활동은 '청년대학생 법의식 설문 조사'였습니다.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평소 법을 얼마나 가깝게 느끼고 있으며, 법적 권리나 의무에 대해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 직접 조사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막연히 '요즘 대학생들은 취업이나 개인의 일상에 치여 법과 정치 같은 거대 담론에는 무관심하지 않을까?' 하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마주한 또래들의 목소리는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대학생들은 사회적 이슈나 법적 권리, 정치적 현안에 대해 자신만의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있었으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변화의 필요성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세대가 결코 사회 문제에 무심하지 않으며, 오히려 누구보다 건강한 법의식과 정치적 관심을 두고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뜨거운 관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을까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었습니

다. 이번 봉사활동은 디자인 학도인 제게 '법과 정치'라는 낯선 분야를 다각도로 탐구하게 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

○ 경희대학교 박 ○ 권

이번 2026년도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법이 사회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습니

다. 학기 초반에는 말레이시아, 몰디브, 마셜제도, 모리셔스 등 여러 국가의 헌법을 번역하고 조사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각국의 헌법 조문을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국가별 법 체계와 기본권 보장 방식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

다. 또한 역사적·사회적 배경이 다른 국가들이 헌법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

다.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인 활동은 대법원 판결문 리서치였습니다. 저는 증권관련 집단소송, 신용카드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가습기살균제 집단피해 손해배상 사건, 평균임금 산정 관련 퇴직금 청구 소송 등 기업의 책임과 피해자 권리 구제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조사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분석하면서 허위 공시나 무자본 M&A와 같은 불법행위가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

다. 또한 금융기관의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 문제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 과정을 살펴보면 자본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느꼈습니

다. 저는 증권관련 집단소송, 신용카드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가습기살균제 집단피해 손해배상 사건, 평균임금 산정 관련 퇴직금 청구 소송 등 기업의 책임과 피해자 권리 구제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조사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분석하면서 허위 공시나 무자본 M&A와 같은 불법행위가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

다. 또한 금융기관의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 문제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 과정을 살펴보면 자본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느꼈습니

○ 덕성여자대학교 박 ○ 정

이번 봉사활동에서 법정치의식 설문조사와 법정모니터링,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하였다.

필수활동이었던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를 대학생 대상으로 진행하면서 나와 같은 대학생들의 법정치의식을 알아볼 수 있었다. 다양한 설문문항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대학생의 생각과 대하여 답변을 구하고 통계를 내려보면서 나 자신과의 생각과 비교해보고 정리해볼 수 있는 활동이었다.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았던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였다.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 다양한 형사, 민사사건 등을 탐구해보며 전공 수업 시간에서 배운 단순 이론 공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판결에서는 그러한 이론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쟁점과 판결요지를 스스로 정리해보는 과정이 전공 지식을 단순히 학습하고 암기하는 것에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 법조인이 되려는 나의 꿈에 한 발자국 나아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먼저 리서치활동을 진행했던 대법원 2021도11938 성폭력특례법위반 사건과 대법원 2024도19106 준강제추행 사건을 분석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사실인정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판단의 요소가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소에 성폭력범죄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관련 범죄의 판결문을 분석하는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었다. 2025도15768 사기 사건을 통해서도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와 인가관계 판단이 범죄 성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사기범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기 범죄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서 사기 범죄가 어떠한 형태로 일어나며 피고인의 주장에 반박하는 검사측 주장과 법원의 판단에 주목하여 판결문을 일러보면서 시기죄에 대한 이해도가 상승하였다. 이 과정에서 법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매우 섬세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배웠다.

민사사건인 2023다240879 손해배상 사건과 2022다302022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 사건을 검토하면서 권리관계의 구조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꼈다. 특히 회사법과 조합법리가 표차하는 사건에서는 법인격의 독립성과 실질적 동업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를 통해 수업에서 배운 법인격 독립의 원칙과 조합관계 이론이 실제 판례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방청하면서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하였다. 개인적으로 이번 봉사활동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재판방청하는 시간을 처음으로 가지게 되어 법원에서의 모든 것이 생소하고 새로웠다. 방청하는 것이 어색하고 재판 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웠다. 특히 민사재판에서 한 재판부에서 짧은 시간동안 정말 많은 사건들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내용을 놓치기 쉬웠다. 하지만 어려웠던 활동을 통하여 얻은 것들도 많았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형사재판을 모니터링하면서 직접 증인신문을 볼 수 있었으며 당사자들의 진술, 변호인의 주장, 재판부의 질의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구나를 알 수 있었다. 실제로 방청하면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재판의 진행과정을 직접 보면서 실제 재판과정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재판이 단순히 법리 적용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실관계 확정과 설득의 과정임을 실감하였다.

이번 활동 전반을 통해 법률 지식이 실제 사건 속에서 어

떻게 구조화되고 적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고 법이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장치라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여 이번 학기에 하지 못했던 활동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에 대하여 관심을 키워나가고 싶다.

○ 숙명여자대학교 백 ○ 채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봉 학 기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법률 관련 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다. 단순히 봉사시간을 채우는 활동이 아니라 실제 법률 자료를 다루고 시민들의 법의식을 조사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법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봉사활동 기간 동안 법 정치 의식 설문조사, 해외 헌법 번역 봉사, 판결문 리서치 등의 활동에 참여하였다. 특히 법 정치 의식 설문조사는 시민들이 법과 정치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활동이었다. 이를 통해 법은 단순히 법조인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의 인식과 참여를 바탕으로 발전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니제르, 나미비아, 니카라과, 네팔의 헌법을 번역하는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처음에는 국가별 헌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 정치적 배경이 헌법 조문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번역 과정에서 각국의 기본권 보장 방식과 국가 운영 원리를 비교해 볼 수 있었고, 우리 헌법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 역시 매우 의미 있었다. 실제 판결문을 읽고 사건의 쟁점, 당사자들의 주장, 법원의 판단과 근거를 정리하는 과정은 법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같은 사건이라도 1심, 2심, 3심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보면 법원의 판단 과정과 논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률 분야는 단순히 법조문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국가의 헌법과 실제 판례를 접하면서 법률가에게 필요한 객관적 사고력과 분석 능력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더욱 넓혀 나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자 한다.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법학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준 뜻 깊은 경험이었으며, 앞으로의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연세대학교 변 ○ 정

2025년과 2026년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의 사회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법이 단순히 조문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해석되는 과정을 직접 살펴볼 수 있었다. 처음 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받을 때에는 활동의 취지와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였다.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봉사가 아니라 자료를 정확하게 읽고 정리하며 시민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작업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

헌법 번역 봉사는 특히 기억에 남는 활동이었다. 명지 헌법과 몰타 헌법, 모로코 헌법, 나이지리아 헌법의 일부 조문을 번역하면서 각 나라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사회적 배경이 헌법 문장 안에 담겨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헌법은 어디서나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가마다 기본권의 표현 방식이나 통치 구조에 대한 관점이 다르게 나타났다. 번역을 하면서 단어 하나를 고르는 일에도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법률 문장은 일반 문장보다 훨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도 깨닫게 되었다.

설문조사 봉사를 통해서도 시민들이 법과 제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법은 전문가들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설문조사 과정은 법과 제도가 시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법률소비자의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서는 오피스텔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원고는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건축되고 분양되었으므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피고는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법적 판단은 단순히 명칭이나 형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 목적과 경제적 실질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은 멀리 있는 추상적인 규칙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세금, 행정, 그리고 권리 보호에 직접 연결되는 실질적인 제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헌법 번역과 판결문 리서치, 설문조사 활동을 하면서 법을 더 정확히 읽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사회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고 싶다.

이번 법을 봉사활동을 통해 법과 정치가 단순히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법학을 공부하는 이유와 앞으로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청년 법·정치 의식 설문조사였고, 두 번째는 미얀마, 말레이시아, 나미비아 헌법을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활동이었습니다.

○ 고려대학교 서 ○ 현

이번 법률 봉사활동을 통해 법과 정치가 단순히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법학을 공부하는 이유와 앞으로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청년 법·정치 의식 설문조사였고, 두 번째는 미얀마, 말레이시아, 나미비아 헌법을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먼저 청년 법·정치 의식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청년들의 생각이 예상보다 훨씬 다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세대라고 해서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지만, 실제로 설문을 진행해 보니 법과 정치에 대한 관심도나 입장,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사람마다 크게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 사회적 쟁점에 대해 뚜렷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다른 사람은 해당 사안 자체를 거의 알지 못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뉴스나 방송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청년이 많지 않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설문 문항 자체를 어려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묻거나, 질문이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지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경우를 보면서 청년들의 법과 정치에 대한 접근성이 생각보다 낮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관심 부족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정치는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와 권리, 의무를 다루는 중요한 영역이지만,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하거나 충분히 배울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법조인은 법을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활동은 외국 헌법을 번역하는 일로, 미얀마, 말레이시아, 나미비아 등의 헌법을 단순히 한국어 문장으로 바꾸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영어로 쓰여 있더라도 각 나라의 역사적 배경, 사회 구조, 문화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문장 속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옮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헌법은 한 나라의 기본 질서와 가치관을 담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를 번역할 때에도 신중함이 필요했는데요. 그렇기에 한국 법률 용어에 맞게 자연스럽게 번역하면서도, 원문이 가진 의미와 그 나라의 맥락을 최대한 살리려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다. 법률 문안은 겉으로는 하나의 문장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압축된 법치, 사회적 배경, 제도적 맥락, 그리고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법조인은 법조문을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문언이 놓인 맥락과 그것이 사회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함을 실감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법과 정치는 제도나 조문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언어가 서로 다른 사회와 법체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점도 깊이 이해하게 되었는데, 아직은 법학을 배워가는 학생의 시선이지만, 법이 조문 속에만 머물지 않고 일상에 서 제 역할을 다하려면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에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봉사에서 얻은 귀중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다양한 맥락을 폭넓

게 살피며 사회에 기여하는 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북대학교 석 ○ 옥

2026년 4월부터 6월에 걸쳐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내게 단순한 '시간 채우기'가 아닌, 법과 사회 정의에 대해 깊이 사유하게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다.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번역 봉사, 판결문 리서치, 법정치설문조사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활동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일깨워 주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번역 봉사는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미얀마, 나미비아 등 다양한 국가의 헌법을 한국어로 옮기는 작업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언어 변환 작업이라고 가볍게 생각했지만, 막상 번역에 임하면서 그 생각이 얼마나 선물렸는지 금세 깨달았다. 각 나라의 헌법에 는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 역사적 상처, 그리고 미래를 향한 다짐이 촘촘하게 새겨져 있었다. 특히 미얀마 헌법 번역 당시, 군부 쿠데타 이후의 정치적 맥락을 떠올리며 조문 하나 하나를 읽어 내려갈 때, 법조문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실임을 피부로 느꼈다. 판결문 리서치 역시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대법원 판결문을 직접 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법부가 어떤 논리로 결론에 이르는지를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었다. 강의실에서 법리를 공부할 때와는 달리, 실제 사건의 당사자들이 처한 상황을 상상하며 판결문을 읽으니, 법학 공부에 대한 동기 자체가 달라지는 기분이었다. '왜 이 법을 배우는가'라는 물음에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법정치설문조사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인상 깊었다. 현장에서 직접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경험을 데이터로 정리하면서, 사법 서비스가 실제 이용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를 확인하는 기회였다.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실감하는 동시에,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 누군가는 끊임없이 헌장을 살펴야 한다는 사실도 절감했다. 돌이켜 보면, 이번 봉사활동의 총 활동 시간은 수십 시간에 불과하지만, 그 시간 동안 내가 얻은 것은 시간의 양을 훌쩍 뛰어넘는다. 법은 책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 숨 쉬는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법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봉사활동은 생생하게 가르쳐 주었다. 앞으로의 학업과 진로를 생각할 때, 이번 경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성찰하게 만드는 단단한 계기가 되었다.

○ 서울시립대학교 손 ○ 희

법과 정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와 현장성을 배우다 소울했던 봉사정신의 각성과 법정치 학습의 새로운 지평 대학에 입학한 이후, 저는 항상 눈앞에 놓인 학업적 성취와 개인의 진로 모색이라는 현실적인 과제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사회를 향한 연대 의식이나 타인을 위한 헌신이라는 '봉사 정신'은 어느덧 제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고, 교과서 속의 법과 정치는 단순한 시험 과목이나 텍스트로만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학업 중심의 건조한 일상에 지쳐갈 무렵, 법률소 비자연한 한국 대학생 법정치봉사단의 모집 공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실이라는 좁은 공간을 벗어나 법과 정치가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시민사회 속에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 찾고 싶다는 열망으로 봉하기 봉사단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봉학기의 여정은 제 안에서 잠자고 있던 봉사정신을 뜨겁게 깨워준 각성의 시간이자, 법과 정치의 현장성을 체득하게 해준 귀중한 학술적 기회였습니다. 활동을 거듭할수록 타인을 위해 나의 시간과 노력을 나누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정신적 충족감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익에 기여한다는 뿌듯함은 저의 가치관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제가 수행했던 세 가지 핵심 활동인 '헌법 번역 봉사', '청년·대학생 법정치식조사', '장애인 접근권 관련 3심 판결문 리서치'는 각각 국제적 안목,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사법 정의의 본질을 깨닫게 해준 최고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세계 헌법 번역 봉사 - 다양성 속에서 발견한 인류정신의 보편성

봉학기 활동 중 가장 먼저 마주한 과제는 세계 각국의 헌법을 우리말로 옮기는 '헌법 번역 봉사'였습니다. 저는 이 활

동을 통해 말레이시아헌법, 마셜제도헌법, 모로코헌법, 모리셔스헌법이라는, 평소에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4개국의 최고 규범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번역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처음 번역을 시작했을 때는 각 국가가 가진 뚜렷하고 독특한 헌법적 특징에 깊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먼저, 말레이시아 헌법의 경우, 다민족·다종교 사회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연방제 구조와 이슬람교의 지위, 그리고 다양한 민족 간의 권리 균형을 세심하게 조율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으로 태평양의 도서 국가인 마셜제도 헌법은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등 환경적 생존권에 대한 고민과 전통적 토지 소유권 제도가 헌법적 가치와 결합해 있는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헌법은 이슬람 정체성과 국왕의 권한, 그리고 현대적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이라는 가치가 공존하고 대립하는 역동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동부의 섬나라 모리셔스 헌법은 식민지 역사를 극복하고 다양한 이주민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한 권리 장전과 민주적 절차를 꼼꼼하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라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정치적 맥락에 따라 헌법이 강조하는 바가 확연히 다른 점은 매우 신기하고 매력적인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번역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제 시선은 차이점이 아닌 '공통점'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표현의 방식과 제도적 형태는 저마다 달랐지만, 4개국 헌법의 행간을 흐르는 본질적인 지향점은 놀라울 만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헌법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간 존엄성을 수호하며, 모든 구성원의 보편적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엄숙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활동은 저에게 시공간과 민족을 초월하여 인류가 최고 규범을 통해 실현하고자 노력해 온 거대한 '인류 정신'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법은 단순히 사회를 통제하고 규율하는 차가운 수단이 아니라, 인류가 오랜 역사적 투쟁과 시행착오 끝에 쌓아 올린 보편적 정의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가장 따뜻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번역봉사는 단순한 언어적 변환 작업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숭고한 배움의 과정이었습니다.

법·정치·의식조사 - 지방선거 전, 청년 세대의 날 선 목소리를 마주하다

헌법 번역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법의 이념을 배우는 시간이었다면, '법·정치·의식조사'는 우리 사회의 역동적인 현실과 호흡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주변 청년/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법·정치·의식조사를 직접 진행했습니다.

조사를 준비하고 설문을 수거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혐오와 무관심이 만연한 시대에 동년배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답변해 줄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만난 청년들의 목소리는 제 예상보다 훨씬 날카로웠고, 우리 사회의 법과 정치 제도를 향한 깊이 있는 소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실 준비된 설문은 한정된 문항의 선택형 방식이었기에, 종이 위 객관식 답변만으로는 이들의 온전한 생각을 모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뜻깊은 발견은 설문지를 돌려받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와 추가적인 구두 의견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가장 큰 특징이자 놀라웠던 사실은, 청년들이 결코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겉으로 보기에 무표정하고 냉담해 보였던 많은 청년은 저마다의 마음속에 사회를 바라보는 뚜렷한 주관과 날 선 소신을 아름답게 피워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청년 세대가 이러한 정치적 목소리를 사회에 쉽게 꺼내놓을 수 없고, 개인의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과정에서 주변의 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의 눈치를 보아야만 하는 경직된 현실 때문에 평소에는 입을 닫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선택형 문항의 체크 표시 너머로, 20명의 대학생은 지방선거라는 지역 민주주의의 축제에 앞두고 주거 문제, 청년 일자리, 지역 불균형,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 보호 등 자신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된 정책 법안에 대해 구두로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성숙한 견해들을 덧붙여 주었습니다. 평소에는 대화의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던 이야기들이, 설문을 계기로 대면하게 되자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은 법의 집행이 공정해야 한다는 당위성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사회적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정치적 참여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전해주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저는 법과 정치가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권자가 어떤 가로막힘도 없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안전한 공론장'을 형성해야 한다는 현장성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설문지 한 장 한 장을 회수하며 청년들이 귀찮게 준 숨겨진 진심을 복기할 때마다, 이들의 소중한 소신이 사회적 분위기에 함몰되지 않도록 포용하는 올바른 법치주의와 건강한 정치 프로세스의 정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습니다. 동년배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생한 문제의식을 직접 생생한 목소리로 확인하면서, 저 역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한 정치적 주체성을 확립하고, 청년들이 눈치 보지 않고 소신을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 장애인 접근권 침해와 사법 정의의 점진적 발전

마지막으로 진행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법의 해석과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학술적으로 가장 깊이 있게 고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장애인의 접근권 침해와 국가배상책임'이라는 무겁고도 중대한 주제를 선택하여, 1심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의 흐름을 추적하고 분석했습니다.<중략>

1심과 2심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저는 하급심 재판부가 기존의 국가배상책임 요건(법령 위반의 객관적 정당성 결여 등)을 엄격하게 해석하면서도,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실질적인 고통과 차별적 상황에 대해 법리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기존 사법 제도의 한계 내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기가 얼마나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인지를 깨달으며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2다289051)에 이르러, 사법부가 우리 사회의 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전향적인 법리를 제시하고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형식적 법 논리에 갇히지 않고, 장애인의 접근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직결되는 본질적 권리임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이를 보장하지 않은 국가의 행정 입법 부작위나 집행 과정에서 과실을 엄격하게 꾸짖음으로써 사법부가 사회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임을 증명해 냈습니다.

이 리서치는 저에게 법을 공부하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엄중하게 물었습니다. 법문(法文)은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의 의지와 시대정신에 따라 법은 얼마든지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판결문 속의 한 문장, 한 문장을 분석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법을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깊은 동경과 사명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되살아난 봉사정신을 안고, 다음을 향한 도약으로

법률소비자연맹 한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에서의 봄학기는 저에게 단순한 '스펙 쌓기'나 일회성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헌법을 번역하며 시공간을 초월한 인류정신의 위대함을 보았고, 지방선거 전 청년들의 목소리를 조사하며 법과 정치의 살아있는 현장성을 경험했으며, 장애인 접근권 판결문을 분석하며 사법 정의가 지향해야 할 소수자 보호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수확은, 그동안 학업을 핑계로 소홀히 했던 제 안의 '봉사정신'이 다시금 뜨겁게 살아났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공익을 위해 나의 역량을 나누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뿌듯한 일인지 몸소 깨달았습니다. 강의실 안의 텍스트에만 갇혀 있던 저를 세상 밖으로 고집내어준 이 소중한 배움의 고리를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봄학기 동안 축적한 이 뜨거운 깨달음과 되살아난 봉사정신은 앞으로 제가 걸어갈 학문적 여정과 삶의 태도에 확고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에만 매몰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법과 정치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행복'을 실천하는 성숙한 주권자이자 지성인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소감을 마칩니다.

○ 성균관대학교 신 ○ 원

나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판결문을 읽고 분석하는 활동

과 니제르 헌법을 번역하는 활동에 참여하였다. 처음에는 두 활동 모두 단순히 문서를 읽고 내용을 정리하거나 번역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활동을 진행하면서 법과 언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먼저 판결문을 읽고 분석하는 활동을 통해 법이 단순히 규칙을 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판결문에는 사건의 경위와 당사자들의 주장, 그리고 법원의 판단 근거가 체계적으로 담겨 있었다.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법관이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실과 법률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론을 내린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또한 같은 사건이라도 여러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며 논리적 사고와 객관적인 판단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법적 판단은 단순히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기존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판결 이유를 분석하면서 법원이 어떠한 법리를 근거로 결론에 도달하였는지 추적하는 과정은 법적 추론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아울러 동일한 법 조항이라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해석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법 해석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법률 문서를 비판적으로 읽고 핵심 쟁점을 도출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으며, 논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법학적 사고방식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판결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한쪽의 주장에 더 공감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판결문을 끝까지 읽어 보면 다른 측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어떤 문제를 판단할 때에는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기보다 여러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배우게 되었다. 또한 법률 용어와 논리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내용을 반복해서 읽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독해력과 분석력이 향상되었으며, 복잡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었다.

니제르 헌법을 번역하는 활동은 국제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헌법은 한 국가의 기본적인 가치와 운영 원칙을 담고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단순한 언어 번역을 넘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번역 과정에서 민주주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역할과 같은 내용들을 접하면서 국가마다 역사와 문화는 다르지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률 문서를 분석하고 번역하는 일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다른 나라의 헌법을 번역하고 우리 사회의 판결문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시각에서도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복잡한 문서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독해력과 사고력, 그리고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능력도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와 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봉사시간을 채우는 경험이라 아니라 책임감과 사회적 가치,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시각을 기를 수 있었던 뜻깊은 경험이었다.

○ 성균관대학교 신 ○ 원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통해 봉사활동의 기본 취지와 윤리, 자료 작성 시의 유의점을 먼저 점검 했고, 이후 저번 겨울 학기에 경험을 쌓은 타국의 헌법 번역 활동을 위주로 2026년도 봄학기 봉사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번 학기에서 가장 꾸준히 시간을 들인 활동은 저번 학기와 같이 각국 헌법 번역이었다.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모로코, 말라위 헌법 일부를 번역하면서, 법전에 특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부분에 특히 주의하며 헌법 번역을 짚어냈다. 헌법 문장은 단어 하나가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바꾸기도 하고, 같은 표현이라도 국가마다 제도적 맥락이 달라 의미가 미

세하게 달라졌다. 그래서 번역 과정에서는 먼저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조항의 취지를 놓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풀어내되, 법적 의미가 흔들리지 않도록 표현을 신중히 선택했다. 특히 의무와 재량을 가르는 표현, 예외조항의 범위, 권리 제한 사유를 명확히 읽어내는 과정은 어렵지만 중요한 훈련이었다. 이번 학기 필수 봉사활동이었던 법의식조사설문 활동이 가장 뜻깊었다. 주위 지인인 대학생들 을 위주로 진행한 법의식조사설문은 생각보다 20대의 법·정치 의식에 대한 의견이 동질적이며 모두 대부분 상당히 낮은 수준의 신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통계상에서도 그 러한 경향성은 확인할 수 있다. 이번 6.3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부실로 인한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이에 따른 참정권 침해 를 외치는 의견도 있었다. 통계자료에서 중앙선관위의 선거 관리가 제대로 못한다는 의견이 31%로 지배적인 것을 고려하면 누적인 불신이 드러난 형태의 일한인 것 같다고 느낀다. 선거라는 제도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참정권을 실현하는 아주 중대한 수단이기 에 약 5천만명의 모든 시민을 물리적으로 연결해야 해야 하는 부담과 책 임을 원활히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로의 개편과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정확한 정보 처리와 논리적인 전개가 법조인으로서 곧 타인과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번역이든 조사는 결국 누군가의 이해를 돕고, 이해관계와 지배적인 의견을 고려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내가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 현재 법학적성시험을 준비하며 여러 문제들을 접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되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까지 되었다. 텍스트 속에 있는 누락스와 쟁점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능력을 앞으로 길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또한, 이후의 법률소비자연맹의 2026년 여름, 가을 봉사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법학적성시험에 집중하느라 소홀했던 판례 리서치 비중을 늘리고 계속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다.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빠른 피드백과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 고려대학교 신 ○ 원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법률이라는 분야를 보다 가까이에서 접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던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평소 법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규범이라는 정도로만 생각해 왔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법률 정보가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과 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살펴 보면서 법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번역 봉사와 판결문 리서치라는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하며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먼저 번역 봉사 활동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정확성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일반적인 글의 번역은 어느 정도 표현을 바꾸거나 의역을 활용할 수 있지만, 법률과 관련된 자료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원문의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해야 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법률 용어나 제도 관련 표현들을 접하면서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를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해당 용어가 실제 법률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까지 이해해야 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여러 문서를 비교하며 의미를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번역은 단순한 언어 변환이 아니라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특히 법률 정보는 잘못 전달될 경우 독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했다.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문장을 수정하고 표현을 다듬으면서 정확성과 가독성을 모두 고려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다. 또한 하나의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해 세부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으며, 이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중요한 역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이번 봉사활동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중 하나였다. 평소 뉴스나 기사에서 판결 결과를 접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실제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분석해 본 경험은 많지 않았다. 판결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느낀 점은 하나의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매우 치밀한 논리와 법적 검토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쟁점을 파악하며, 법원이 어떤 법 조항과 논리를 근거로 판단을 내렸는지 분석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면서도 흥미로웠다.

특히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 단순히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논의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었고, 법원은 다양한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을 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여러 판결문을 검토하면서 법이 단순히 규칙을 적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와 현실적인 상황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판결은 특정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유사한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 전체에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만큼 신중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사회 현상이나 이슈를 바라볼 때도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는 태도를 갖게 해 주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률소비자연맹이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일반 시민들에게 법률은 여전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내가 수행한 번역과 리서치 업무 역시 이러한 목적을 지원하는 과정의 일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느꼈다.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나에게 단순한 봉사활동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경험이었다. 번역 봉사와 판결문 리서치를 수행하며 법률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고, 책임감과 분석력, 문제 해결 능력 또한 키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공익 실현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이번 활동에서 얻은 경험과 배움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 동국대학교 안 ○ 빈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며 접한 법은 대개 교과서와 판례집 속에 고착된 추상적인 텍스트였다. 강의실에서 배우는 조문과 이론이 실제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숨 쉬며 기능하는지, 그리고 사법 권력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어떻게 감시되고 평가받아야 하는지 현장에서 확인 하고 싶어 법률소비자연맹 사법감시 활동에 참여하였다. 판례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리한 리서치 과정은 사법 정의를 바라보는 지평을 넓히고 법학도로서의 실천적 사명감을 일깨운 성 장의 시간이었다. 활동의 중심축이었던 판결문 리서치는 하급심과 상급심의 유기적인 법리 공방을 추적하며 판결이 지닌 사회적 무게를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법적 가치가 대립 할 때 사법부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떻게 수호하는지 목격할 수 있었다. 특히 국가 기밀의 한계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 정면으로 충돌했던 외교 기밀 유출 사건을 분석하면서 사법 감시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변호인과 검사 측의 공방을 분석하며, 면책특권의 공간적 한계와 외교상 기밀성이 지닌 실질적 가치의 기준 을 엄정하게 정립해 나가는 사법부의 판단 과정을 깊이 있게 학습하였다. 비록 유죄 판결을 피할 수는 없었으나, 피고인의 구체적 정황을 참작하여 실질적인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선고 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변론 과정을 보며 변호사의 역할이 지닌 책임감도 함께 깨달았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판례 리서치 활동은 사법 권력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판결만큼이나 이를 투명하게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감시 체계가 필수적임을 가르쳐주었다. 강의실을 벗어나 직접 판결문들을 분석하며 얻은 지식은 사법 영역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돕고자 하는 학업의 방향성을 더욱 공고히 해주었다. 이번 활동에서 얻은 실천적 경험을 자양 분 삼아, 앞으로도 우리 사회

의 사법 시스템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능하는 데 일조하는 신뢰 받는 법학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단국대학교 안 ○ 석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대학생 봉사단 활동을 하면서 책상에서는 절대로 하지 못했을 뜻깊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불학기 필수활동이었던 대학생·청년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법정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언론모니터링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선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같은 대학생이라도 법과 정치에 대한 관심도와 인식 수준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문제와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지만, 또 다른 사람은 법과 정치가 자신의 일상과는 멀리 떨어진 영역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문 법조인이나 정치인만의 노력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관심과 참여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대학생은 앞으로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될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의 법정치의식을 살피는 일은 단순한 설문조사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점검하는 의미도 지닌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하면서 수많은 거절을 경험한 것도 저에게는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설문 참여를 요청했다가 매몰차게 거절당할 때에는 당황스럽고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의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의 저 역시 누군가가 정중하게 설문조사를 요청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심하게 지나친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오랜 시간 거리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거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차분히 다시 요청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큰 인내심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단순히 법정치의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인의 요청을 대하는 태도와 사회적 참여의 의미, 그리고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법정모니터링 활동은 저에게 가장 인상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법정은 막연히 엄숙하고 멀게만 느껴졌지만, 실제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재판이 한 사람의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매우 현실적인 절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인, 당사자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주장과 판단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절차의 공정성이 왜 중요한지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사용되는 말과 태도, 재판 진행 방식 하나하나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은 단순히 결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투명하고 납득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는 하나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사실 관계 정리, 법리 검토, 증거 판단, 당사자 주장에 대한 검토가 매우 촘촘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학과에 재학 중이라 보니 평소에도 판례나 판결문을 접할 기회가 비교적 많았지만, 이번 활동처럼 하나의 사건에 대해 1심부터 3심까지의 판결문을 모두 살펴본 경험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욱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각 심급의 판결문을 비교해보면서 같은 사건이라도 법원이 어떤 사실을 중요하게 보았는지, 어떤 법리를 중심으로 판단했는지, 그리고 이전 심급의 판단이 이후 심급에서 어떻게 유지되거나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판결문을 단순히 결론만 확인하는 자료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건을 어떤 논리 구조로 판단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직접 법원에 판결문을 요청하고,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도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판례를 읽는 것과 달리, 필요한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잠시나마 실제 법률 실무 수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판례를 분석하는 업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조금이나마 체감할 수 있었고, 법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흥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평소 관심을 가지

고 있던 사회적 이슈를 직접 찾아보고 보고서 형태로 정리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가볍게 접할 때와 달리, 관련 기사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보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해당 이슈의 배경과 쟁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소에는 저도 모르게 익숙한 언론사나 특정 관점의 기사만 주로 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활동에서는 서로 다른 성향의 언론매체를 비교하며 같은 이슈가 어떻게 다르게 보도되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언론의 논조와 관점에 따라 같은 사건도 강조되는 부분이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체감했습니다.

이처럼 법률소비자연맹 대학생 봉사단 활동을 통해 설문조사, 판결문 리서치, 언론모니터링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습니다. 각각의 활동은 법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었고,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앞으로 어떤 태도로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야 하는지 생각해볼게 해주었습니다.

다음에도 이와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 경희대학교 양 ○ 모

이번 봄 학기 봉사활동을 준비하면서 평소 익숙한 분야가 아니었던 법 정치 분야에 대해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걱정도 많이 앞섰습니다. 특히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처음 받아서 읽어봤을 때는 평소 학교 수업이나, 아니면 뉴스에서나 접할 수 있었던 저와는 먼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은 내용들을 보고 나서는 과연 봉사활동을 할까 싶을 지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진정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또 지금보다 더 나은, 더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반드시 해봐야 하는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법, 정치 분야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고, 단순히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이론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는 법과 정치는 어떤 방식으로 이용되며, 어떻게 우리 삶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건설적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아보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총 4회의 판결문리서치 봉사활동은 저에게 있어서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적인 내용들이 실제 사법환경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학기동안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하면서 활동한 판례들은 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며 접했던 다양한 판례들로 선택했습니다. 처음 했던 판결문인 2020다16420 판례는 형법 판례 중에서도 널리 인정되던 다수설을 뒤집은 판례로 배웠던 판례로써, 실제 전문을 읽어보며 제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적용해서 해석해보고, 그런 해석들을 통해 다른 처음 보는 시민들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이 판결문뿐만 아니라, 2018다248855, 2024다248920 판결문을 리서치하면서 미래에 법조인이 된다면 가장 많이 다루게 될 계약법에서 실제 선배 법조인들은 어떤 판단을 하여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이런 분쟁이 벌어지면 대법원에서는 여태까지 수업에서만 듣던 조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며, 당사자들에게 미칠 개인적 영향과, 사회 전반에 미칠 사회적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2023다302838 판결문을 리서치하면서는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법원은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미래에 어떤 일을 내가 해야 하는지 알아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이번 학기 필수 활동이었던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활동은 정치적인 식견을 넓히는 데 아주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를 보면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경향이 심해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점점 함께 사회를 살아가는 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나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그러한 다른 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이 과거에 비해 많이 나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그런 능력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고 느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저

의 주변 사람들은 저와 어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게 되고 직접 통계를 내보면서 저의 생각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었던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번역 봉사 활동에도 참여했는데, 평소 잘 모르던 국가들의 헌법을 번역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기도 했고, 어려웠습니다. 흔하게 사용하는 영단어가 아니라 법률 분야에서는 영어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지 알 수 있었고, 다른 나라의 헌법에 대해서 들여다보며 한국 헌법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한국 헌법의 기본 이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새길 수 있었던 즐거운 활동이었습니다.

이번 학기 봉사활동을 하면서, 학교 수업도 들어야하고, 개인적으로 해야하는 공부도 있고 해서 판결문 리서치와 번역 봉사 외에 다른 봉사활동에는 많이 참여하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법정 모니터링이나 언론 모니터링 등 현재 사회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법, 언론 환경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갈 수 있는 활동도 반드시 해보고 싶습니다.

○ 연세대학교 양 ○ 서

이번 봉사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나이지리아, 네팔, 말라위 세 나라의 헌법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 대법원 판결문 네 건을 분석·정리하는 사법감시 리서치, 그리고 2025년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9개 언론사의 보도 논조를 비교하는 언론 모니터링이 그것이다. 각각의 활동이 요구하는 능력과 시간이 달랐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것들을 많이 배웠다.

헌법 번역 작업은 처음에 단순히 영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나이지리아 헌법의 통합세입 기금 조항이나 감사위원의 임명·해임 절차를 번역하다 보니, 이것이 단순한 언어 전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Consolidated Revenue Fund'를 '통합세입기금'으로 옮기는 것은 사전에 찾으면 되지만, 그 기금이 해당 국가의 재정 구조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번역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다. 네팔 헌법의 비상대권 조항은 더욱 그랬다. '대통령이 기본권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규정 옆에 정지할 수 없는 조항들이 긴 목록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그 목록 하나하나가 그 나라가 내전과 왕정 폐지를 거치면서 지켜내고자 했던 가치들을 담고 있었다. 말라위 헌법의 옴부즈만 조항도 마찬가지였다. '옴부즈만은 어떠한 개인이나 기관의 간섭으로부터도 완전히 독립된다'는 문장은 짧지만, 그 한 줄이 담고 있는 의지가 작지 않다는 것을 번역하면서 새삼 생각했다.

판결문 리서치는 솔직히 가장 힘든 작업이었다. 대여금 사건, 부당이득금 사건, 배당이의 사건, 근로소득세 경정거부 사건—네 사건 모두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그나마 수월했지만, 쟁점을 정리하고 판결 요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법학 지식의 한계를 절감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과 별채권의 효력 관계'나 '원천징수증의무자의 경정청구권' 같은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여러 번 다시 읽어야 했다. 그러면서 판사와 변호사의 이력을 함께 조사하다 보니, 법조계가 생각보다 훨씬 좁은 세계라는 것도 느꼈다. 같은 연수원 기수 출신 판사와 변호사가 같은 사건에서 만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고, 그 점이 사법감시 활동이 왜 필요한지를 역으로 설명해 주었다.

언론 모니터링은 세 활동 중 가장 흥미로웠다. 상법 개정안이라는 동일한 사안을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어떻게 다르게 프레임하는지를 나란히 놓고 보는 경험은 꽤 인상적이었다. '소액주주 보호'와 '경영 위축'이라는 두 프레임이 같은 법조문을 두고 완전히 다른 언어로 기사화되는 것을 보면서, 독자로서 어느 한 매체만 읽으면 얼마나 편향된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는지를 실감했다. 특히 주가 급등 장면을 크게 부각한 MBC 보도와 '행동주의 펀드의 위험'을 집중 조명한 조선일보 보도가 같은 날 같은 사실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세 활동을 마치고 나서 공통적으로 든 생각은 법과 제도가 문서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헌법은 그 나라가 겪어온 역사의 산물이고, 판결문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분쟁이 응결된 기록이며, 언론 보도는 그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해석의 경쟁이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경영학과 학생으로서, 이

봉사활동은 법이라는 것을 외워야 할 규칙서가 아니라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이 시각 자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이번 봉사를 통해 얻은 가장 의미 있었다.

○ 연세대학교 오 ○ 연

정치와 법 사이, 모호한 균열 위에서

모리셔스 헌법 번역 봉사와 판결문 리서치, 그리고 대학생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는 겉으로 보기엔 서로 다른 세 가지 경험이다. 그러나 실제로 몸을 담가 보니, 모두가 정치와 법,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축 위에서 서로 다른 단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된 활동들이 결과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와 그 문화적 후유증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모리셔스 헌법을 번역하는 작업은, 낯선 국가의 텍스트를 우리말로 옮기는 기술적 작업을 넘어, 헌법이라는 문서가 민주주의의 최종 해답이 아니라 그저 출발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했다. 헌법 조항 속에는 삼권분립, 기본권, 선거제도처럼 익숙한 장치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곧바로 그 사회에 성숙한 정치 문화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했다. 같은 구조를 한국 헌정질서에 겹쳐 보았을 때, 제도적 골격은 비슷해도 그 위를 흐르는 정치의 언어와 시민의 태도는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이 선명해졌다. 이후 진행한 판결문 리서치는 이 느낌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었다. 법원이 저작권, 부정경쟁, 영업비밀, 표현의 자유 같은 쟁점에서 어느 쪽으로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 사회의 갈등과 이해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는지가 눈앞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법은 중립적인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과 가치 판단의 축적물이라는 사실 이 더 이상 추상적인 문장이 아니게 되었다. 이런 문제의식은 대학생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를 하면서 비로소 지금의 한국이라는 현실 위에 구체적으로 안착했다. 우선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2030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낡은 통념이라는 것이다. 설문지 실제 응답해 준 사람은 다섯 명에 불과했지만, 설문지를 보여 주며 참여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20명이 넘는 인원이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상당수는 질문을 훑어 본 뒤 굳이 밝히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참여를 거절했다. 정당 선호, 쟁점 이슈에 대한 입장, 정치적 가치관을 드러내는 문항 앞에서 스스로를 한 번 더 검열하는 모습이였다. 정치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성 측면에서 반가운 변화다. 그런데 그 관심이 공론의 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괜히 말했다가 정쟁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라는 두려움으로 우회되는 현실은 결코 건강하게 보이지 않는다. 상호관용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공간에서는, 정치적 발화가 곧바로 공격과 낙인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예감이 사람들의 입을 막는다. 모리셔스 헌법이나 대법원 판결문 속에서 읽었던 민주주의의 원칙들이, 실제 한국 사회의 일상적 정치 문화 속에서는 얼마나 쉽게 공포와 피로로 치환되는지를 눈앞에서 확인한 셈이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질문을 구성하는 방식이 응답률과 데이터의 다양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깨닫게 했다. 특정 이슈를 정면으로 묻는 문항, 특정 진영 간 갈등을 연상시키는 표현은 응답자들에게 '편 가르기'로 읽혔고, 그 지점에서 참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이 경험을 돌아보면, 설문 설계 단계에 봉사자들이 더 깊이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인터뷰의 목적을 공유하고, 인터뷰어가 이 질문을 어떤 프레임으로 읽을지, 어느 수준의 추상도에서 질문을 던져야 방어기제 대신 진솔한 응답이 나올지를 함께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가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다. 정해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아래에서, 봉사자들이 직접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질문 구조를 설계해 본다면, 훨씬 다양한 답변 데이터가 축적될 뿐 아니라, 정치적 양극화 상황에서 필요한 신중함과 개방성을 동시에 학습하는 기회도 마련될 것이다. 결국 이번 활동들을 관통하는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제도와 법리가 아무리 정교해져도, 그 위를 흐르는 정치 문화와 시민의 태도가 따라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민주적인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모리셔스 헌법 번역을 통해 제도의 한계를,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법리의 선택성을,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조심스러운 체면을 마주한 경험은, 민주주의를 단지 헌법에 규정된 틀에 갇힌 체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갱신해야 하는 문화적 실천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날 선 주장만이 아니라, 서로의 말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가드레일을 어떻게 법과 제도, 질문과 언어의 층위에서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집요한 고민이라는 점을 이번 봉사활동들이 조용히 일러 주고 있다.

○ 동국대학교 유 ○ 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사회봉사인 공약이행률조사, 법의식조사 및 언론모니터링 봉사 활동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현장에서 호흡하고,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이 왜 존재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해 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법학과 정치학(복수전공)을 전공하며 책과 강의실에서만 접했던 민주주의 공론장과 정치의 현장을 실제 데이터와 기록을 통해 면밀히 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사회 공익과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적인 목표로 부풀리기 관행은 반드시 단절되어야 할 권력을 감시한다는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했습니다. 우선 민선 8기 기초자치단체장 대한 공약이행률 조사를 수행하면서 정치적 수사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거 당시 제시되었던 공약의 이행 현황을 면밀히 추적해 본 결과,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이었음에도 생각보다 이행률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공약 자체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인상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예산 확보나 행정적 절차상 여러 관계 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인 대규모 사업인데도, 지자체장 자기의 권한인 양 즉시 완수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정작 타 기관에 협조조차 구하지 않은 공약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사회 공익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보여주기식 공약 부풀리기 관행은 반드시 단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유권자들이 선거 과정에서 가장 날카롭게 검증해야 할 핵심 대목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을 대신하여 이 엄밀한 검증 작업을 수행하고, 성실한 행정의 정착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공약이행률조사 봉사활동의 깊은 보람과 의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언론모니터링 활동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10대 일간지의 일주일간의 사설을 분석하며 우리 사회 여론 형성의 출발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설은 신문사의 고유한 이념과 주관적 견해를 표출하는 글이기 때문에 기사와 같은 완전한 기계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설이 국민과 여론에 끼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단순한 흥미 위주의 자극적 비난이나 특정 진영만을 옹호하고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여 사회적 양극화를 조장하는 행태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 당연한 명제일 것입니다. 언론모니터링은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진정으로 견제해야 할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올바른 시각을 제공 하는 공적인 봉사라는 생각에, 언론모니터링 또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사회적 책임감을 빼고 분석하기 어려웠습니다. 일주일간의 사설 분석 결과, 국내 메이저 언론 사들일수록 거대 정치 담론과 진영 정쟁에 과도하게 매몰되어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간혹 다른 모든 매체가 주목 하지 않는 소외된 사안이라도 우리 사회와 직결된 구조적 문제나 민생 이슈를 발굴하여 다루는 언론사도 몇 있었으나, 이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대부분 언론사 사설에서는 특정 정치적 진영의 입장만을 편향되게 옹호하거나 반대 진영을 매섭게 비판하는 논조가 그대로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는 극한의 정치적 양극화와 증오 정치의 시발점이 다른 아닌 언론의 사설 지면이 아닐까 하는 깊은 우려와 회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신문의 얼굴 이자 지성의 정수인 사설은 민주주의의 건강한 공론장을 보호하고 성숙한 여론을 형성해야 할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언론모니터링 분석보고서에 기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언론모니터링은 언론이 과연 그 숭고한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주권자의 눈으로 감시하고, 우리 사회 디지털 리터러시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와중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와 언론 권력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진보, 보수 진영은 어디 간 데 없고 시민들만 올림픽 공원에 모여 재선거를 외치고 있고, 이 틈을 타 부정선거를 외치던 친윤 세력이 섞여 들어가며, 언론은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들을 부정선거 및 보수 세력으로부터 묶어 보도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치와 언론 권력을 실시간

으로 모니터링하며 감시할 필요가 절실히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번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비판적 안목을 기르는 소중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말뿐인 공약으로 표심을 현혹하는 정치 권력과 진영 논리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언론 권력을,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시민과 국민 의 눈으로 투명하게 감시하는 시민사회 힘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활동에서 얻은 책임감과 날카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하는 시민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다짐을 할 수 있는 소중한 배움과 사회 정의 실현에 일조할 기회를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사를 드립니다.

○ 고려대학교 이 ○ 호

이번 2026년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지난 2024년 가을 2025년 겨울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한 봉사활동입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필수 활동인 청년 법·정치 인식 설문조사를 포함해, 두 개의 대법원판결 판결문리서치와 10대 일간지 사설 언론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필수활동인 청년 법·정치 인식 설문조사는 온라인이 아닌 직접 대면해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은 사법에 대한 인식, 정치에 대한 인식, 선거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6월 3일 지방선거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알릴 수 있고, 이 인식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와 관련된 인식을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문 결과 응답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잘하지 못한다고 응답했고, 이 결과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엄중한 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청년의 인식이 개선되고 더 나은 선거 관리를 위한 각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판결문리서치 활동은 화재로 인한 사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대법원판결과 선거 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청구 소송의 대법원 판결, 이 두 개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판결문리서치를 통해 공통으로 느낀 점은 판결문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이 어렵다는 편견으로 인해 판결문 또한 어렵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판결문을 읽어보면, 금액을 선정하는 부분은 복잡하긴 하지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는 과정이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드러나 있어 비교적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단어도 검색을 통해 쉽게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용되는 법률이 많고, 그 법 조항이 어떤 것인지 판결문에 드러나지 않은 점이 이해를 저해하긴 했지만,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판결문리서치를 하면서 제가 만든 보고서가 법을 모르는 사람이나 관련된 소송을 겪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활동은 10대 일간지의 언론모니터링이었고, 전에 해봤기에 전에 했던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언론모니터링을 진행한 해당 주차인 4월 셋째 주는 지방선거와 미국 이란 전쟁이라는 굵직한 이슈가 있어 그 내용을 중심으로 언론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양이 많지만, 중요한 주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언론사별 논조를 비교하며 볼 수 있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 역시 지난번 활동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바꾸는데 나의 작은 활동이 기여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 덕성여자대학교 이 ○ 빈

이번 법 관련 봉사 활동은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법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 준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강의로만 법을 접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이번 봉사 활동을 통해 법이 실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법적 사고력과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법이 국민의 권리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봉사활동에서 크게 '헌법 번역

봉사, '법정치의식설문조사', '법정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총 4가지의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헌법 번역봉사' 활동에서는 몰디브, 모리셔스, 미얀마, 몰도바 헌법의 일부 조항을 번역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법률 용어와 긴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여러 자료를 찾아보며 조항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국가마다 정치 체제와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헌법의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단순히 외국 헌법을 번역하는 것을 넘어 각 국가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으며, 법률 문서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법정치의식설문조사' 활동에서는 시민들의 법과 정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같은 사회를 살아가더라도 법과 정치에 대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발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은 국민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국민의 인식과 참여 속에서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법정모니터링' 활동에서는 형사사건 재판 두 건을 방청하였습니다. 책으로만 배웠던 재판 절차를 실제로 보면서 법이 적용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판사, 검사, 변호인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며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의 사건을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면밀하게 검토되는 모습을 보면서 법적 판단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권리 보장과 적법절차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모습을 보며 법치주의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긴 판결문 속에서 핵심 내용을 찾고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여러 번 읽고 분석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이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법리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법적 사고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특히 법원의 판단 근거를 하나하나 검토하며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논리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은 앞으로 법학을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히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법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법률 지식을 실제 사례와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법을 바라보는 시야도 더욱 넓어졌습니다. 또한 법은 단순한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히 공부하며 법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중앙대학교 졸업 이 ○ 문

지난 학기에 처음 한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 활동에 참여하면서 법과 정치를 단순한 학문적 지식이나 제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법과 정치 분야에 관심이 있었지만, 봉사단 활동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직접 접하고 분석하면서 교과서나 언론을 통해 얻는 지식과는 또 다른 배움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과 정치가 실제 사회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민해 보고, 다양한 국가의 헌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의 사회 현상이나 법적 쟁점을 바라 보더라도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분석 능력 또한 한층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학기 활동은 단순히 봉사 시간을 채우는 활동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활동을 마친 후에도 법과 정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고, 다양한 자료를 접하며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과 배움이 있었기에 이번 봄학기에도 한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에 다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법정치 의식 조사, 번

역봉사, 판결문 리서치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각각의 활동은 법과 정치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며, 특히 실제 자료를 직접 다루며 학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법정치 의식 조사 활동을 통해서도 시민들의 법과 정치에 대한 인식과 참여 의식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접하며 민주주의가 제도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을 접하면서 서로 다른 시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과 이 같은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엮는 정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번역봉사 활동에서는 미얀마, 나미비아, 네덜란드, 니제르 헌법을 번역하였습니다. 각 국가의 헌법을 살펴보면 국가마다 역사적 배경과 정치·사회적 환경이 다르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자 하는 헌법의 역할은 공통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헌법 조문 하나 하나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 각 국가별 정치 형태와 관련 내용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차이점을 비교해 가며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이해도 조금 깊어졌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지난 학기와 이번 학기를 통틀어 가장 많은 성장을 체감할 수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지난 학기에 두 차례, 이번 학기에 두 차례의 판결문 리서치를 수행하면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와 복잡한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읽으면서도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인지, 법원이 어떠한 논리로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다. 그러나 활동을 반복할수록 판결문을 읽는 방법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하게 느껴졌던 법률용어들도 점차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판결문 속에서 핵심 쟁점과 판결 요지를 찾아내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 지난 학기에 이어 다시 활동에 참여하면서 꾸준한 경험의 축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던 내용들도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익숙해졌고,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학습을 통해 더욱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 한양대학교 이 ○ 아

이번 봄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평소 대학 강의나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던 법과 사법제도를 보다 가까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번 활동에서는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판결문 리서치, 법정모니터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사법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였다. 판결문은 어렵고 전문적인 문서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여러 사건의 판결문을 직접 읽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어떠한 논리와 근거를 바탕으로 결론에 이르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같은 사건이라도 1심, 2심, 대법원 판단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살펴보면 사실인정과 법리해석이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판결문에 나타난 증거의 평가, 법 조항의 적용, 양형 판단 등을 검토하면서 법률이 단순한 규정의 집합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라는 점을 체감할 수 있었다. 이전에는 뉴스 기사에서 재판 결과만 접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결과보다 그 과정과 논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법정모니터링 활동 역시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실제 형사 항소심 재판을 방청하면서 공개 재판 원칙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방청한 재판원에서는 절도, 사기, 모욕, 스토킹범죄, 폭행, 보험사기 등 다양한 사건이 진행되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으며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양형부당이나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였다. 이를 지켜보면서 재판은 단순히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각 당사자의 주장과 사정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판사들이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공정한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재판 과정

에서 당사자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항의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며 질서를 유지하였다. 또한 판사들이 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하고 필요한 내용을 직접 기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일부 사건에서는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방청객이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는데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재판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가 보완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접근성과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시민의 사법감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법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관이지만 일반 시민이 실제 재판을 접할 기회는 많지 않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법정모니터링 활동은 시민이 재판 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평가함으로써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느꼈다. 또한 법률은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이해해야 하는 사회적 제도라는 사실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단순한 봉사시간 이수를 넘어 법과 사회를 이해하는 시야를 넓혀준 의미 있는 경험이 있었다. 앞으로도 시민의 권리와 사법제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참여를 실천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배움을 바탕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민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이 ○ 현

지난 겨울학기에 이어서 이번 2026 봄학기 봉사활동에서도 우리 사회의 여러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고, 시민으로서 할 일을 고민해 보는 값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판결문 리서치 3건, 언론 리서치, 그리고 필수활동 법정치의식 설문조사까지 총 세 가지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과 언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서는 대법원의 주요 판결 3건을 골라 내용을 분석하고 정리했습니다. 판결문 뒤에 숨은 법적인 이유와 논리를 꼼꼼히 따져보는 일은 많은 생각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법원이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기준을 세우는 사법부의 역할과 법의 무게감을 다시 한 번 깊이 느꼈습니다.

언론모니터링 활동에서는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여러 경제 신문의 사설을 바탕으로 중요 뉴스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비교하고 분석했습니다. 똑같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두고도 언론사마다 어떤 시각과 말투로 글을 쓰는지 비교해 보면서, 언론이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언론사만의 틀이 작동하는 방식을 분석해 본 것은, 글 뒤에 숨은 진짜 뜻을 읽어내는 눈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의 필수 활동이었던 법정치의식 조사는 최근 정치와 법적인 부분에서 크게 화제가 된 뉴스들에 대해 제 주변인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여론조사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시사각각 변하는 정치와 법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 조사하면서, 정말 사람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각자의 이유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이번 봄학기 봉사활동은 판결문과 신문 사설을 꼼꼼히 읽는일부터, 사회전반적 이슈에 대한 주변인들의 다양한 의견까지 보고 정리하는 경험을 해 볼 수 있었던 참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분석하고 밖으로 나가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때로는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는 눈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정리한 자료들이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번 활동을 통해 배운 것들을 마음속에 잘 새겨두고 앞으로 제 자리에서 성실히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번 학기에도 이렇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숙명여자대학교 이 ○ 빈

이번 2025년 봄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법률 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법조인을 꿈꾸며,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관련 경험을 쌓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 지인을 통해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법학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활동을 진행할수록 법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저는 법·정치·의식 설문조사와 판결문 리서치, 미얀마 헌법 번역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먼저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활동을 하며 사람마다 법과 정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전혀 다른 의견이 나오는 모습을 보며 사회 속 다양한 가치관과 시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미얀마 헌법 번역 활동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외국어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치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함께 이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얀마의 정치 상황과 군부 문제 등을 접하며 헌법과 법 제도가 한 사회의 현실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생소한 법률 용어들을 찾아가며 번역하는 과정에서 법률 문서의 정확성과 표현의 중요성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였습니다. 처음에는 판결문의 긴 분량과 어려운 법률 용어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여러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정리하면서 점차 판결문의 구조와 법원의 판단 논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 판결문을 리서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평생 큰 상처로 남을 수 있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결에서는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나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형량이 감형되는 사례들을 보며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은 객관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알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위험성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판결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또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히 스펙이나 경험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법이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 느낄 수 있었던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법정 모니터링을 하여 직접 재판을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법학 공부에 더욱 성실히 임하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귀한 소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 경북대학교 장 ○ 현

법률소비자연맹과 함께한지도 어느덧 3년째를 맞이했다. 약 200시간의 봉사활동을 본 연맹과 함께 진행하면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표면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으며, 개인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던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 비단 법률 해석 능력 신장과 리걸 마인드 함양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 나의 능력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상상 이상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학기는 본 연맹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학기와 병행하여 진행했기에 가끔씩 힘에 부치기도 했으나, 공익을 위해 힘쓴다는 생각으로 성공적인 봉사를 마칠 수 있었다.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사실상 마지막 봉사 활동 학기가 될 것이었기에 더 많은 시간을 봉사에 쏟지 못한 아쉬움이 들기도 하지만, 통산 5회의 봉사활동에서 주기적인 참여를 통해 나름의 성과를 올린 것에 자부심과 만족감이 드려우기도 한다. 로스쿨 입시에 직면한 상황에서 본 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이 나 자신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켰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기에 입시에서 좋은 결과 역시 따라오기를 소망한다.

본 연맹을 통한 봉사활동의 의의는 이때까지 수행한 봉사 활동 실적을 돌아볼 때마다 그 당시 자신의 생활,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데에 있다. 대학 생활의 대부분을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과 함께 했기에 봉사활동과 대학 생활의 기억을

교차하며 '이때는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떠올리며 추억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지금껏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을 한 차례도 후회한 적이 없으며,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년의 시간 동안 법률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훗날 어엿한 법조인으로 성장하여 다시 법률소비자연맹과 인연이 닿기를 소망한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 성균관대학교 장 ○ 빈

이번 봄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 대학생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판결문 리서치와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법학적 사고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노동법과 민사집행법 분야의 판결을 중심으로 다양한 쟁점을 접하면서, 법이 사회적 갈등과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법문을 해석하는 차원을 넘어, 절차적 안정성과 실질적 공평 사이에서 법원이 어떠한 가치 판단을 하는지 고민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손해배상(기) 사건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위법한 쟁의 행위와 노동조합의 책임 범위라는 중요한 노동법적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보장과 사용자 손해배상청구권 사이의 충돌이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책임 제한의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하였는지를 분석하면서, 법이 단순히 권리 충돌을 기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맥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동쟁의가 단순한 법률문제를 넘어 사회구조와 노동 현실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배당이의 사건 리서치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절차적 안정성과 자기책임 원칙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채권신고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1심과 2심은 실질적 공평을 중시한 반면 대법원은 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판결을 분석하면서 민사집행절차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과 기한을 엄격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법적 판단은 단순한 법문 적용이 아니라,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 형평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정이라는 점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법정모니터링 활동 역시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형사·민사·가사 재판을 방청하며, 교과서 속에서 배우던 법적 절차가 실제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공익적 형벌권 행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관찰할 수 있었고, 가사재판에서는 당사자의 사적 갈등 속에서도 법원이 신중하게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은 단순한 법률 적용이 아니라 사람의 삶과 권리를 다루는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실감했습니다.

아울러 청년대학생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청년 세대가 법과 정치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과 정치 제도에 대한 신뢰와 참여 의식이 사회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앞으로 법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현실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봄학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법학 공부는 단순히 판례와 조문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는 법리적 사고력과 분석능력을 길러주었고, 법정모니터링은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으며, 설문조사는 법과 사회의 관계를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법적 전문성과 공공적 책임의식을 함께 갖춘 법학도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후배들에게도 이 활동을 적극 추천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법의 현장을 경험하고 사회 문제를 깊이 고민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연세대학교 전 ○ 재

평소에 법과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본인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목표를 갖고 있었다. 대 학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선배로부터 법률소비자연맹의 한국대학생 법정치봉사단의 봉사활동을 추천받아 신청하게 되었다. 법과 정치를 모두 관심사로 두고 있었기에, 두 분야의 연계성을 띄는 활동을 하고 싶었다. 메일로 보내주셨던 봉사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의 과제를 수행하며, 해당 봉사활동의 취지를 먼저 배우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국가가 헌법을 갖추고 있고, 법치주의를 채택하는 의의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과제 수행을 한 이후, 본인은 영어로 쓰인 여러 국가 헌법의 한글로 번역 봉사했다.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북마케도니아,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의 헌법을 번역하며 느낀 바가 많았다. 국가의 정치체제와 시스템에 따라 헌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달랐지만 (재판의 과정과 의회의 표결구조),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안전한 거주 환경, 국가에 대한 소송 제도, 그리고 자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해당 번역 봉사를 통해 헌법이 국가의 기본 통치 이념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연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치와 자유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전에는 형법, 행정법, 민법에 관심이 많았으나, 국가 이전의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 헌 법부터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후, 필수활동으로서의 법정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학교 동기들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12회 하였는데, 대부분 설문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보고 본인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과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지금보다 더 개선되어야 한다고 느꼈고, 본인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언론 모니터링 봉사를 하며, 법 이외의 관심사였던 국제정치에 대해 다루어 보았다. 중동전쟁 이슈에 대한 서로 다른 성향의 언론의 보도 경향을 분석했다. 동일한 이슈에 대해 언론의 상이한 보도 경향을 분석하며 국민의 공정한 보도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할 수 있는 역할로는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보게 되었다. 처음 법률봉사를 신청했을 때에는, 본인이 법률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하다는 현실 때문에, 힘든 과정을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번역과 관심사로 두고 있는 국제정치와 연계하여 법률봉사를 수행하기에 흥미를 갖고 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이와 같이, 법률과 여러 분야를 연계할 수 있다는 사실은 법률이 우리 삶 모든 분야에 녹아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삶을 살아가며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법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보아겠다.

○ 한경국립대학교 전 ○ 원

이번 봉사활동은 법률연맹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법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번 활동에서는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판결문 리서치, 언론 모니터링, 나우루 헌법 번역봉사에 참여하였으며, 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가장 먼저 참여한 활동은 법정치의식 설문조사였다. 설문조사는 대학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주로 주변 지인들에게 설문 참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설문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사람들의 법과 정치에 대한 생각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같은 또래라고 하더라도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관심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법과 정치가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원활한 소통의 중요성과 적극적으로 참여를 요청하는 태도의 필요성도 배울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진행한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였다. 평소 전공 수업을 통해 판례를 접할 기회는 있었지만, 직접 판결문을 찾아 읽고 내용을 분석하는 경험은 많지 않았다. 처음에는 법률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자료를 함께 찾아보며 사건의 배경과 쟁점을 정리해 나갔다. 특히 판결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어떠한 논리와 근거를 통해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살펴보면 법적 사고방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으며, 법학 전

공자로서 실무적인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 다.

세 번째 활동은 언론 모니터링이었다. 나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설치 논란을 주제로 선정하여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기사를 비교·분석하였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음에도 언론사에 따라 사용하는 표현과 강조하는 내용,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조선일보는 검찰청 폐지에 따른 우려와 부작용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고, 한겨레는 검찰 권한 분산과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를 분석하면서 언론을 접할 때 하나의 기사만 읽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 언론 보도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배울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참여한 활동은 나우루 헌법 번역봉사였다. 번역 작업은 단순히 단어는 다른 언어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헌법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규정하는 법률 문서이기 때문에 표현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했다. 번역 과정에서 법률 용어와 표현을 찾아보며 공부할 수 있었고, 문장의 의미를 보다 자연스럽게 전달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으며, 법률 문서 번역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단순히 봉사시간을 채우는 것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고,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법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었으며,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또한 번역봉사를 통해 정확한 의사전달과 책임감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번 활동은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더욱 깊게 만들어 준 시간이었다. 교과서나 강의실에서 배우는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법과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여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전공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이번 봉사활동은 나에게 많은 배움과 성장을 안겨준 소중한 경험으로 오래 기억될 것 같다.

○ 성신여자대학교 정 ○ 희

이번 봉사활동은 두 번째로 참여하는 활동이었기에, 첫 번째보다 한층 더 능동적이고 깊이 있게 임할 수 있었다. 처음 참여했을 때는 전반적인 활동 방식과 절차를 익히는 데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보다 주도적으로 자료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스스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

특히 판결문 리서치 과정에서 이전보다 민사 분야에 집중하여 조사할 수 있었던 점이 인상적이었다. 학부 과정에서는 주로 형사법이나 기본적인 법 과목 위주의 학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사 영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깊이 있게 접해볼 기회가 부족했다. 그러나 이번 활동을 통해 다양한 민사 판결문을 직접 찾아보고, 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를 한층 심화시킬 수 있었다. 단순히 판결 결과를 확인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어떠한 논리와 근거를 통해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추적하는 과정은 법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여러 판결문을 비교·분석하면서 유사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법 적용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이론 중심의 학습에서 나아가 실제 법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 이번 경험을 계기로 향후 봉사활동에서는 조사 범위를 더욱 확장하여, 다가오는 여름학기에는 형사 판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탐구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민사와 형사 영역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법을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싶다.

번역 봉사 또한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다. 영어로 작성된 법률 문서를 직접 번역하는 과정은 단순한 어학 능력을 넘어 법률 용어와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을 요구하였고, 이를

통해 언어적 정확성과 논리적 해석 능력을 함께 기를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 헌법과 모리타니, 몬테네그로, 모리셔스, 모나코의 헌법을 비교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점이 인상 깊었다. 각 국가마다 사용되는 언어, 국가 상징, 제도적 구성 등 세부적인 요소에서는 차이를 보였지만, 인간으로서 최소한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와 가치에 대해서는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헌법이 단순한 국가 운영의 규범을 넘어,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으며, 국가 간 차이를 이해하는 동시에 공통된 가치를 발견하는 경험은 매우 의미 있게 다가왔다. 또한 다양한 국가의 헌법을 접하면서 각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역사적 배경이 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었고, 이는 법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활동에서는 필수 과제로 청년·대학생 유권자의 법정치 의식을 조사하는 설문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설문지를 배포하고 응답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주변 친구들과 모교 후배들에게 직접 참여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총 82부의 응답을 모을 수 있었다. 단순히 설문지를 배포하는 것을 넘어, 참여를 독려하고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 또한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수집된 응답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예상보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다. 응답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인식이 단일하지 않고 하나의 스펙트럼을 이룬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다양한 배경과 경험에 따라 법정치의식이 다층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관점과 판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웠고, 이를 통해 사회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통계 정리를 넘어, 실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성인이 된 이후 법과 관련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활동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다. 전공과 연계된 봉사활동을 통해 학습과 실천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었고, 이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사회적 책임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주어진 기회를 통해 의미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는 점에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느낀다.

이번 두 번째 봉사활동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역량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던 과정이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법학적 전문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동시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고민을 이어가고 싶다.

○ 한양대학교 조 ○ 리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법과 관련한 수업을 듣고 나서 이렇게 내가 배운 것을 바탕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찾던 중에 알게 된 활동이었다. 로스쿨에 진학하기 전에 다양한 판례를 접하고 분석하고 싶었고, 나에게도 도움이 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점에 매력을 느껴서 봉사활동에 지원하고 활동하게 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는 다양한 봉사활동이 있는데, 그중에서 나는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였다. 이 활동은 대법원의 주요 판례를 선정하여서 1심, 2심, 3심에 이르는 각 심급의 판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률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용어를 풀어서 해설하는 작업이었다. 활동 기간엔 여러 판례를 직접 분석하고 정리하였는데, 처음에는 판결문 특유의 딱딱한 문체와 생소한 법률 용어들이 어렵게 다가왔다. 하지만 판례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고 각 심급에서 법원이 어떤 논리로 판단을 내렸는지 비교하다 보니, 법원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법리를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이해가 조금씩 되기 시작했다. 특히 1심,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뒤집히는 사례를 분석할 때는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법원마다 어떻게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뒤집히는 판례를 보면 법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같은 사실관계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신기했다. 어려운 법률 개념을 찾아서 정리하는 것을 통해서 법률 개념을 더 잘 알 수 있게 도움이 되었다. 또 다른 활동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시장 2명의 공약 이행 여부를 조사하는 일이었다. 선거 당시 내세웠던 공

약들이 실제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이 활동은 단순히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을 넘어서 시민이 직접 행정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경험이 되었다. 공약 이행 현황을 조사하면서, 생각보다도 더 선출된 공직자가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또, 이렇게 공직자가 얼마나 약속을 성실히 이행 하는지를 기록하고 알리는 일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시민 참여 활동임을 느꼈다. 처음에 이런 공약이 이행되었는지 조사하는 것은 생소하고 어려웠지만, 공약의 이행여부를 하나하나 평가하고 다 기록한 결과물을 보았을 때 다른 시민들이 공약의 이행을 더 쉽게 알 수 있는 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뿌듯했다. 이렇게 이번 한 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 얼마나 깊이 맞닿아 있는지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법률 용어와 판결문의 복잡한 구조가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지만, 활동을 거듭하면서 판결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내가 이해한 판결문을 다른 사람들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일에 점차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 이런 법률정보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가치있는 일임을 활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느꼈다. 앞으로도 법과 시민 사회가 보다 가까워질 수 있도록 관심을 이어가고, 이런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

○ 경희대학교 조 ○ 희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한국대학생 법정치봉사단에 참여하며, 평소 교과서나 뉴스에서 만 막연하게 접해왔던 사법체계와 판결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분석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판결문 분석을 넘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민낯을 마주하고, 그것이 법치주의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조율되고 해결되는지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이었습니다. 활동의 첫 단추는 오리엔테이션 교재를 통해 법치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가치를 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합의, 타협,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복습하며, 법이 단순한 처벌이나 규제의 도구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확고한 방법이라는 것을 체감하였습니다. 특히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사회학적 이해관계의 충돌을 해결하는 공정한 기준이 왜 필요한지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판결문 리서치 단계에서는 총 5건의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건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둘러싼 행정 사건을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성립 여부를 다룬 형사 사건, 공소장변경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 위자료 청구와 관련된 가사 및 민사 사건, 그리고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정밀하게 다룬 사건까지 사회적 쟁점이 뚜렷한 판례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듣기 힘든 법률 용어와 복잡한 사실관계 때문에 판결문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피고와 원고, 검사와 변호사 사이의 팽팽한 주장 속에서 무엇이 정의인지 혼란스러웠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엄격하고도 객관적인 법리 해석과정을 한 문장 한 문장 따라가면서, 사법부가 하나의 판결을 내리기 위해 얼마나 신중하게 고민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법질서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균형 잡힌 시각을 보며,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의 엄중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사실관계와 쟁점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며 하나의 판결문의 전체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의 성취감은 앞으로 잊기 힘들 것입니다. 동시에 시민의 관점에서 사법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보았습니다. 리서치를 수행하며 느낀 가장 큰 벽은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에 여전히 판결문이 너무 어렵고 불친절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나치게 길고 만연체로 작성된 문장 구조나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생소한 법률 용어는, 재판의 당사자나 국민이 결과를 온전히 납득하고 수용하는 데 큰 장벽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결문 작성보다 간결해지고, 핵심 쟁점과 사실관계가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된다면 국민의 사법 신뢰도가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의 시각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저에게 단순한 봉사시간을 넘어, 민주 시민으로서 사법 정의를 바

라보는 올 바른 시각을 고민할 수 있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공동체에 대한 의무의 이행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진정한 원동력임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이번에 보고 느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의 가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성숙한 지성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 서울대학교 최 ○ 현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서는 헌법 번역, 청년 정치의식 설문조사, 판결문 리서치 세 가지 활동에 참여하였다. 각 활동은 성격이 달랐지만, 법과 제도가 실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경험이었다. 강의실에서 이론으로 접했던 내용들이 실제 문서와 현장 속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활동은 학업과 실천을 잇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가장 비중 있게 임했던 활동은 헌법 번역이었다. 말레이시아, 마셜 제도, 나이지리아, 네팔 네 나라의 헌법 일부를 번역하면서, 헌법이라는 동일한 형식 안에 얼마나 다양한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선택이 담겨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번역 과정에서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각국이 헌법에서 어떤 가치를 앞세우고 어떤 제도적 장치를 선택했는지를 함께 읽어내야 했다. 예를 들어 같은 '기본권' 조항이라 하더라도 국가마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제한 방식이 달랐고, 이를 우리말로 정확하게 옮기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체계와 정치적 배경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특히 마셜 제도처럼 소규모 도서 국가의 헌법과 나이지리아처럼 복잡한 연방제 구조를 가진 국가의 헌법을 나란히 다루면서, 국가의 규모나 역사적 경로에 따라 헌법이 다루는 문제의 층위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 경험은 법이 보편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각 사회의 구체적인 조건 위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점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 또한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가 의미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번역 작업 특유의 긴장감이 법률 언어에서 더욱 첨예하게 느껴졌다. 이 과정에서 법률 문서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뿐 아니라, 언어의 선택이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청년 정치의식 설문조사 활동에서는 직접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과정에 참여하면서, 평소 통계나 수치로만 접하던 '청년의 정치의식'이라는 주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응답자의 반응이나 설문 항목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을 직접 경험하면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에도 수많은 선택과 판단이 개입된다는 점을 느꼈다. 같은 질문을 두고도 응답자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거나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의식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다층적인지를 실감하였다. 정치참여나 제도 신뢰에 관한 질문들을 구성하고 수집하는 과정은,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판결문 리서치에서는 지체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거부와 관련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사건(서울 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2794)을 1심부터 상고심까지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이 사건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거부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것으로, 각 심급마다 법원의 판단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지점들이 흥미로웠다. 판결문을 읽으면서 법적 판단이 조문의 기계적 적용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와 맥락에 대한 해석에 크게 달려 있다는 점을 실감했고, 장애인의 이동권이라는 문제가 법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지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심급이 올라갈수록 판단의 근거가 정교해지고 쟁점이 더욱 좁게 압축되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사법 판단이 어떤 논리적 구조 위에서 형성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법이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였다. 세 활동을 통해 공동적으로 느낀 것은, 법과 제도는 추상적인 원칙의 집합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실천의 영역이라는 점이다. 헌법 번역에서는 각국이 어떤 사회를 구성했는지를, 설문조사에서는 시민들이 그 제도를 어떻게 체감하는지를, 판결문 리서치에서는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세 가지 층위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고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번 활동

의 가 장 큰 수확이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얻은 시각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법과 사회의 관계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싶다.

○ 동국대학교 최 ○ 서

이번 봉사활동은 법조인을 꿈꾸고 있는 저에게 매우 의미 있고 값진 경험이었습니 다. 저는 이번 활동에서 ‘판결문 리서치’와 ‘법정 모니터링’에 참여하며 법률 분야를 보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서는 총 5건의 판결문을 분석하며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법률 문서의 방대한 분량과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판결문을 반복해서 읽고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사건을 논리 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의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어떠한 법적 논리가 적용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사고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률 문서를 읽고 이해하는 역량이 향상되면서 법학 공부에 대한 흥미도 더욱 커졌습니다. 법정 모니터링 활동은 이번 봉사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이었습니 다.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재판장 방청하면서 평소 교과서와 강의를 통해서만 접했던 법조 현장을 눈앞에서 경험 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판사와 변호사, 당사자들이 사용하는 법률 용어 와 절차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수업에서 배웠던 법학 개념들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모습을 보며 큰 흥미를 느꼈습니 다. 또한 재판이 단순히 법률 조항을 적용하는 과정이 아니라 다양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을 내리는 과정 이라는 점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저의 장점과 보완해야 할 점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 활동이라는 이유로 초반에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여 활동 시작이 늦어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활동이든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반면 한 번 업무를 시작하면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여 끝까지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것 이 저의 강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모든 과제를 기한 내 에 성실하게 완료하며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활동 과정에서 일부 담당자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오리엔테이션이 자료로만 제공되어 초기에 활동 방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과정 또한 스스로 문제를 해 결하고 적응하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봉사활동은 법학에 대한 관심과 진로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게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봉사활동과 현장 경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실무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고 싶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자세를 잃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며 성장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서울대학교 최 ○ 윤

2025년 춘계학기에 처음 법률소비자연맹의 대학생 법정치 봉사단 활동을 경험하며 법이 단지 교과서나 강의실 안에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사회 속에서 시민들의 권리와 정치의식, 사법절차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다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고, 이번에는 법률 관련 번역 봉사,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그리고 판결문리서치까지 총 세 가지 종류의 봉사활동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활동은 성격은 달랐지만 모두 법과 사회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먼저 법률 관련 번역 봉사의 경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세계 각국의 헌법을 우리말로 소개 하고 다양한 법제도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말라위, 마셜제도, 모리타니, 그리고 미크로네시아까지 총 네 개 국가의 헌법 번역에 지원하였다. 영어로 작성된 법조문을 한국어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단순한 직역만으로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법률 용어를 적절하게 선택해야 했고, 조문 간의 관계나 문장구조를 고려해 한국어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다듬는 과정도 필요했다. 이때 각국의 법체계가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조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컨대 한 국가의 정치 구조, 식민지 경험, 종교적, 사회적 배경 등에 따라 헌법 조항

이 강조하는 가치나 제도적 장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번역 작업에 앞서 각 국가의 역사적, 정치적 및 법적 배경에 대해 간단히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배경조사는 조문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 번역 봉사를 통해 법률 번역은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한 국가의 제도와 가치관 까지 함께 이해해야 하는 작업이라는 점을 체감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이 활동은 작년에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올해 역시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에 진행되어 더욱 의미있게 느껴졌다. 선거가 몇 주 안 남은 시점에서 주변의 청년 및 대학생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법인식과 정치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또래 세대가 정치와 법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직접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청년 유권자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선거와 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반대로 정치가 자신의 삶과 멀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에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단순히 응답을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어떤 청년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어떤 청년들은 정치에 거리감을 느끼는 것인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에 처음 시도해본 활동은 사법감시 활동의 일종인 판결문리서치였다. 이전에도 뉴스나 수업을 통해 몇몇 주요 판례들을 접한 적은 있었지만, 법원의 판결문 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읽고 분석해본 경험은 전무했다. 이에 어떤 판결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진행하면 좋을지 고민하던 중, 시장경제와 공정거래법을 다루었던 학교 강의에서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대법원 판결이 떠올라 2024두32973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사건을 조사하게 되었다. 해당 사건은 이른바 ‘타다’ 기사들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된 사건으로, 플랫폼 노동이 확대되는 오늘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판결이라고 생각하였다. 단순히 한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분쟁을 넘어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을 기존 노동법 체계 안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리서치를 통해 1심부터 3심까지의 판결문 전문을 정독하면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들이 정리되고 판단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판결문 안에 세부적인 사실관계들이 생각보다도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뉴스 등을 통해서만 사건의 핵심 쟁점 정도만 간략하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판결문에는 당사자들의 주장, 계약 구조, 업무 수행 방식, 지휘 및 감독 여부, 보수 지급 방식 등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주 세밀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추상적인 법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축적 위에서 내려진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판결문 요지와 전문을 읽는 것 외에도 소송대리인의 과거 기록을 살펴보고 사건의 쟁점 및 사실관계를 나만의 언어로 다시 정리해보았다. 처음에는 판결문 검토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를 통해 전체 소송의 타임라인과 판결이 갖는 의미를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 특히 플랫폼 노동과 노동자성이라는 주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 해질 문제라는 점에서 법과 사회 변화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 봄학기 법정치봉사단 활동을 통해 법률 다양한 방식으로 접하고 또 이해할 수 있었다. 헌법 번역 봉사를 통해서도 각국의 법체계가 헌법적 가치의 다양성을 배울 수 있었고, 법정치 의식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청년 유권자들의 법인식과 정치의식을 직접 마주해볼 수 있었다. 또한 판결문리서치를 통해서도 실제 판결이 어떠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형성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법이 결코 사회와 분리된 전문지식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 정치참여, 노동환경, 경제구조 등 현실의 여러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꼈으므로써 법률 보다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게 된 뜻깊은 경험이었다.

○ 연세대학교 최 ○ 서

2026년도 봄학기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나는 법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지점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사람들의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확인해보고자 했다. 평소 법학적 쟁

점과 사회 시스템에 대해 가졌던 관심을 바탕으로 참여한 이번 활동은, 단순히 이론적인 배움을 넘어 실제 현장의 목소리와 법 집행의 실제 과정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두 달 동안 마주한 과제들은 나에게 법적 사고를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주었다.<중략>

가장 흥미롭게 느껴졌고 법적 사고력을 실질적으로 키워준 활동은 법정 모니터링이었다. 평소 법조인의 업무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법원이라는 공간에 직접 방문할 기회를 내기 어려웠으나, 이번 활동을 통해 재판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재판은 예상보다 훨씬 역동적이었다. 특히 처음 들어간 법정에서는 단 30분 만에 15개가 넘는 사건의 판결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며 사법 행정의 효율성과 그 속도감에 놀랐다. 반면, 쟁점이 복잡한 또 다른 재판은 한 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기도 하는 것을 보며 사건의 경중과 재판 절차에 따라 법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적용되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다. 더불어,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와 기소하는 검사, 그리고 이를 중재하며 엄중히 판단하는 판사의 역할이 현장에서 수행되는 과정을 통해 이 분야의 업무가 지닌 매력과 무게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다음으로 20시간의 번역 봉사는 나의 시야를 세계로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다. 모로코,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그리고 몰디브라는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네 국가의 헌법을 번역하며, 각 국가의 정치 체제와 역사적 문화 형성 과정에 따라 헌법의 지향점과 세부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의 조문들과 비교하며 보편적인 법 원리 속에 숨겨진 국가별 특수성을 탐구하는 과정은 학술적으로도 매우 유익했다. 특히 전문적인 법률 용어 중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단어를 우리말로 옮길 때, 문맥에 가장 부합하는 용어를 선택하기 위해 고민했던 시간은 법률 문장이 지닌 정밀함과 언어의 엄중함을 배우는 소중한 훈련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서는 대법원 2023도17596 판결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다루며 1심부터 3심에 이르기까지의 판결 흐름을 파헤치는 과정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꼼꼼히 읽고 분석하며 법적 쟁점을 명확히 추출하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 이유 및 법원의 최종 판단 근거를 요약하는 과정에서 법리적 사고 능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었다. 사실관계의 복잡함 속에서 법적 논리를 정교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법이란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엄밀한 체계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이번 학기 동안의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며 내게 남은 가장 큰 수확은 법이 단순히 책에 적힌 조문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실제로 작동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조율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각 활동을 통해 법적 정의와 시스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이 시간은 나에게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활동이 주는 보람이 컸던 만큼, 다음 학기에도 이 배움의 여정에 기꺼이 참여하여 법과 사회를 바라보는 나만의 관점을 더욱 견고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가고 싶다.

○ 연세대학교 최 ○ 명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대학생 봉사활동은 단순히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법학이라는 분야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평소 로스쿨 진학에 관심이 있었지만 법학이 실제로 어떤 학문인지, 법조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기회가 많지 않았다. 이에 로스쿨에 지원하기 전에 법학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법률소비자연맹의 법정지봉사단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헌법 번역과 판결문 리서치를 중점으로 활동했다. 판결문 리서치는 대법원 2018다303653 손해배상 사건, 2022다219427 손해배상(의) 사건, 2023도12316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2024다222861 회사에 관한 소송 사건 등을 조사하였다. 처음에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읽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쟁점을 파악하며 판결의 논리를 분석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매우 흥미로웠다. 특히 하나의 사건에서도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른 주장과 논거를 제시하고,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

로 어느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단순히 법 조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해석하고 법적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법원은 어느 한쪽의 입장이 아니라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검토한 뒤 가장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도 느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판결에 관한 후속기사를 리서치하면서 이 판결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찾아보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법으로 연결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헌법 번역 활동 역시 쉽지만은 않았지만 의미있는 활동이었다. 몰도바 헌법과 미얀마 헌법 일부를 번역하면서 단순한 언어 번역을 넘어 각 국가의 정치체제와 기본권 보장 구조를 이해해야 정확한 번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건강권, 환경권, 선거권, 집회의 자유 등 다양한 기본권 조항을 접하면서 헌법이 국가 운영의 근본 원칙을 담고 있는 중요한 규범이라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마다 역사적·정치적 배경은 다르지만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공통된 가치가 존재한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을 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수확은 LEET 준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LEET은 단순한 암기시험이 아니라 복잡한 글을 읽고 논리 구조를 파악하며 핵심 쟁점을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인데, 실제 판결문을 읽고 정리하는 과정이 이러한 능력이 향상된다고 느꼈다. 판결문은 사실관계, 주장, 쟁점, 법원의 판단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논리를 분석하는 연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이 봉사활동을 강력히 추천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학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고, 내가 왜 법학을 공부하고 싶은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또한, 법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판례와 법률문제를 꾸준히 공부하여 법적 사고력을 키워 나가고 싶다. 특히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한 봉사 경험을 넘어 진로와 학업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앞으로의 진로를 준비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된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연세대학교 추 ○ 우

이번 학기 법률소비자연맹 한국대학생봉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한 활동은 대학 입학 후 처음으로 경험한 법률봉사였다. 강의실에서 이론과 텍스트로만 접하던 법과 제도가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기능하는지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자료집 학습으로 대체하고 오티회신서를 제출하면서 봉사의 책임감과 유 의 사항을 정독하는 것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타국의 헌법 번역, 법정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그리고 법·정치·의식 설문조사까지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하며 예비 법률인이자 능동적인 시민으로서 필요한 시각을 기를 수 있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고 가장 큰 배움을 얻은 활동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의 법정 모니터링이었다. 재판이라는 엄숙한 절차가 실제 사법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생생하고 뜻깊은 경험이었다. 판사, 검사, 변호인, 그리고 피고인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보며, 사법부의 판단이 단순한 법리 적용을 넘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진실을 가려내는 책임감 있는 과정임을 실감했다. 특히 재판 진행 과정을 비교해보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시민들에게 쉽게 풀어 설명하거나 당사자의 상황을 배려하는 법원의 노력을 목격했다. 이를 통해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 사회적 따뜻한 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다. 이어 진행한 대법원 판결문 리서치는 법을 바라보는 시야와 사고력을 한 차려 더 단단하게 다져주었다. 사법 정의가 판결문 속에서 어떻게 논리적인 법치주의의 원칙으로 결합하는지 치밀하게 분석하는 기회였다. 방대한 재판 기록 속에서 핵심 쟁점을 선별하고, 법원의 판단 논리를 비전공자나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 쓰는 과정은 스스로의 문해력을 동시에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려운 법적 용어를 일상적인 표

현으로 전환하는 작업이야말로 내용을 온전히 이해해야만 가능한 공부였다. 더불어 판결문 리서치 활동과 병행하여 세 나라의 헌법 조문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문맥을 다듬는 봉사활동을 수행하였다. 자구 하나에 따라 국민의 법적 권리와 의무가 달라지는 헌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번역 과정에서 문장의 엄밀성과 정밀함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마다 상이한 법률 문장의 표현 방식을 직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었으며, 국내 법치주의 체계를 넘어 글로벌 사법 규범의 기초가 되는 헌법적 가치를 각각으로 살펴보는 거시적 인 안목을 기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수행한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는 사법과 정치가 결코 소수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일상적인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깊이 실감하게 한 활동이었다.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권자로서의 성숙한 권리 의식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었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사법부의 역할과 공정한 법치주의의 실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얼마나 높은지 통계적·현실적 데이터로 파악하며, 사법의 대중적 소통과 신뢰 구축이 지닌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법학이라는 학문을 단순히 강의실 책상 위 텍스트로만 이 해하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사회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정의의 실천적 저력으로 바라보게 해 준 귀중한 자산이다. 여러 활동을 유기적으로 수행하며 사법 절차를 관찰하고 분석했던 경험은 앞으로 학업을 이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봉사 과정에서 체득한 균형 잡힌 시각과 사법 현장을 향한 객관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사법 정의의 실현과 시민의 권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법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 정진하겠다.

○ 성균관대학교 허 ○ 윤

이번 봄학기에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헌법 번역, 판결문 리서치 및 2026법정치의식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헌법 번역 활동에서는 말레이시아, 몰타, 몬테네그로의 헌법 번역을 진행하였다. 헌법을 번역하기 전 찾아본 각 국가의 배경지식을 토대로 해당 나라의 헌법 조문이 우리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수 있었고,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배경을 함께 조사하며 봉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같은 헌법이라도 국가마다 중요하게 다루는 가치와 제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해하면서 번역해야 했기에 단순한 언어 번역 이상의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판결문 리서치였다. 2025두35061, 2024도8121, 2020도12920, 총 3건의 판결문을 리서치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쟁점을 도출한 뒤, 법원이 어떠한 논리를 통해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분석하였다. 판결문을 직접 찾아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경험이 처음이라 처음에는 판결문 분량이 많고 법적 논증도 복잡하게 느껴져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여러 번 읽으면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구분하여 정리하니 판결의 흐름이 훨씬 명확하게 보였다. 특히 법원이 단순히 법조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판단을 내린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었다. 또, 형사사건에서는 증거와 법적 평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법적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고, 판결문 속 논리를 따라가며 법적 추론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판결문은 단순히 사건의 결과를 기록한 문서가 아니라 사실관계, 법적 쟁점, 법리 해석을 통하여 결과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담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또한 방대한 자료 속에서 핵심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평소 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에는 판례의 핵심 법리나 결론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실제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하며 법원의 사고 과정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었다. 마지막으로, 봄학기 필수활동이었던 2026 청년대학생법정치의식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우리 사회의 법과 정치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직접 접할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을 했다. 평소에 법과 정치가 다소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많은 대학생들이 사회 문제와 정치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법과 정치에 대

한 시민의식이 민주사회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 번 느꼈고 앞으로도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헌법 번역, 판결문 리서치,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각각의 봉사활동을 하며 법과 정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 봉사활동 또한 참여하고 싶다.

○ 고려대학교 홍 ○ 진

이번 봄학기에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헌법 번역, 판결문 리서치 및 2026법정치의식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헌법 번역 활동에서는 말레이시아, 몰타, 몬테네그로의 헌법 번역을 진행하였다. 헌법을 번역하기 전 찾아본 각 국가의 배경지식을 토대로 해당 나라의 헌법 조문이 우리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수 있었고,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배경을 함께 조사하며 봉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같은 헌법이라도 국가마다 중요하게 다루는 가치와 제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해하면서 번역해야 했기에 단순한 언어 번역 이상의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판결문 리서치였다. 2025두35061, 2024도8121, 2020도12920, 총 3건의 판결문을 리서치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쟁점을 도출한 뒤, 법원이 어떠한 논리를 통해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분석하였다. 판결문을 직접 찾아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경험이 처음이라 처음에는 판결문 분량이 많고 법적 논증도 복잡하게 느껴져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여러 번 읽으면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구분하여 정리하니 판결의 흐름이 훨씬 명확하게 보였다. 특히 법원이 단순히 법조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판단을 내린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었다. 또, 형사사건에서는 증거와 법적 평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법적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고, 판결문 속 논리를 따라가며 법적 추론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판결문은 단순히 사건의 결과를 기록한 문서가 아니라 사실관계, 법적 쟁점, 법리 해석을 통하여 결과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담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또한 방대한 자료 속에서 핵심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평소 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에는 판례의 핵심 법리나 결론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실제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하며 법원의 사고 과정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었다. 마지막으로, 봄학기 필수활동이었던 2026 청년대학생법정치의식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우리 사회의 법과 정치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직접 접할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을 했다. 평소에 법과 정치가 다소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많은 대학생들이 사회 문제와 정치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법과 정치에 대

※ 이하 법률연맹 홈페이지의 자원봉사 소감문을 참조

The Due(True) Administration
of Justice is the Firmest Pillar
of Good Government
공정한 사법은
민주국가의 가장 튼튼한 기둥이다.

미국 George Washington이 1789.9.28.초대 대통령 취임직후
초대 법무부장관에게 당부한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임.
현재 뉴욕 변호가 Supreme Court에 각인·선언되어 있음